

# 2016 /

출제영역	문항번호		쪽수
화법교육론	A01	설득의 화법과 전략 : 설득의 3요소와 설득 전략	02
	B02	집단 화법 : 토의의 종류 - 회의의 규칙과 순서	06
독서교육론	A02	읽기 능력 평가의 방법 - 중심내용파악하기 [중요도평정법]	09
	A11	읽기 사고과정에 따른 읽기 전략	11
	B01	학습 목표에 따른 수업 설계 - 교사 활동을 중심으로 -	13
작문교육론	A03	인지적 구성주의 작문교육관에 따른 작문 교육의 특징	17
	A13	모범문에 따른 쓰기 교육  : 형식주의(형식면)+사회적구성주의(내용면)	20
	B03	작문 평가 방법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평가 방법의 모색	28

2016 표현/이해 교육론 (26점/32.5%)	유형		배점		회법	독서	작문
	A	2	6	설득	중심내용 파악	작문 교육관	
	A	4	8		능동적 읽기 전략	작문 교수 - 학습	
	B	4	10	토의 중 회의	사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추론적 이해	작문 평가	
				6점	10점	10점	

회법교육론 6점	A01 (2)	<회법과 작문> 설득	설득의 회법 - 연설 - 설득의 3요소에 따른 설득의 전략
	B02 (4)	대화의 유형, 토의	토의의 종류 - 회의의 순서와 규칙 (의장의 역할)
독서교육론 10점	A02 (2)	중심내용파악하기	중심내용 파악하기에 관한 진단 평가를 바탕으로 학생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지도 내용(방향) 쓰기
	A11 (4)	능동적 읽기 전략	읽기의 사고 과정에 따른 효과적인 읽기 전략 - 교사의 시범 보이기를 사례로 일는 중 교사가 사용한 전략 알아 보기
	B01 (4)	표현의도 파악하기	학습 목표의 성취를 위하여 읽기 단계에 따른 교수-학습 설계하기 < 학생 활동을 중심으로 설계 >
작문교육론 10점	A03 (2)	작문교육관(인지)	형식주의 작문 교육관과 구별되는 인지주의 작문교육관- 작문의 변인(예상독자 분석하기)을 고려하여, (배경지식 활성화하여) 내용 생성하기
	A13 (4)	작문교육관(형식)	모범적인 글쓰기 : 글구조 이론에 토대를 둔 글쓰기, 전통적인 글쓰기- 한문학 설양식을 바탕으로 자아를 성찰하고 사회적인 성찰해 보기
	B03 (4)	쓰기능력 평가방법	직접 쓴 글을 바탕으로 미숙한 필자를 지도하기에 적절한 평가방법의 모색- 총체적 평가와 선다형 평가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평가방법의 개발

• 표현 · 이해 교육론의 출제 비중은 전체 문항 중 32.5%로 전년도보다 상승했다



총평

- 회법6점, 독서10점, 작문교육10점으로 회법의 비중이 축소되고 독서 및 작문의 비중이 다소 높아졌다
- 회법교육의 경우 <회법과 작문> 영역의 지식 사항 중 설득하는 말하기 부분에서 출제되었고, 대화 중 토론 영역에서 출제되었던 것과는 달리 토의 중 '회의'부분에서 출제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항 내용 또한 회의의 순서와 원칙, 구성원의 역할 관한 질문으로 내용 체계 분류 기준 중 기능(기능은 원리와 전략을 주로 다름) 파트에서 출제되었기 때문에 17년도 회법 영역의 주된 출제 대상은 회법의 원리 중 '순서 교대의 원리', 설명하는 (정보 전달) 말하기, 토의와 관련된 지식, 기능, 태도의 핵심 이론과 연관된 토의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관련 교육과정 내용의 내용 요소가 될 수 있겠다.
- 독서교육의 경우 사고 과정에 따른 읽기의 단계 중 사실, 추론적 이해 영역에 초점을 맞춰 출제되었으며, 수업의 실제와 관련하여 읽기 전, 중, 후 단계에서 능숙한 독자를 만들기 위한 교사의 읽기 전략은 무엇이어서 하는가를 교사 활동 중심으로 조직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출제 경향과 관련, 2017년 시험은 비판적 이해 영역과 감상적 이해 영역과 관련이 있는 개정 교육과정 내용 범주의 한 항목을 학습 목표로 설정하여 학습 내용 요소에 따른 교사의 교수 - 학습 전략을 설계해 보고 지도상 유의점(미숙한 독자)은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학습 지도안을 작성해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 학생 활동과 관련해서는 내용면에서 불륨의 '가치의 내면화'와 관련된 이론을 숙지하고 자아의 성찰을 사회적 성찰로 확대시키기 위한 학습 활동을 구안해 보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

- 교과교육론 영역과 관련, 교수-학습 영역은 내용 범주에 있어서는 비판적 이해 영역을 다루되 직소 모형 (전문가 학습)을 토대로 비계 설정의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소모임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교사의 지도상 유의점은 무엇인지, 토의나 토론의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책임 이양의 원리를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지에 대한 교사 활동과 학생 활동을 고민해 본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 본다.

- 작문교육의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작문교육관의 변천에 따른 쓰지지도의 모형의 특성 (장점과 단점)을 숙지하고 학습 목표를 성취하는데 적절한 교수 - 학습 모형을 개발, 적용해 보라는 문제를 작문 평가 영역으로 우회해서 출제한다든가, 모범적 글쓰기 (형식주의 작문교육관)에 토대를 두되 장르 중심의 전통적인 글쓰기 방식(사회적 구성주의 작문교육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아의 성찰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주된 제재로 삼아 지도하라는 문제로 출제하였다. 이러한 작문 교육의 출제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앞에 언급한 각 작문 교육관의 형성 배경에 기초한 공통점과 차이점, 각 작문 교육관의 핵심 이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 작문의 각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쓰기 능력평가 중심으로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토의 중심의 협동 학습, 쓰기 워크숍에 따른 전자 작문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둔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백한빛 선생님의  
과제비특강

2016

/

**A-1 - 화법** 1. 다음은 연설의 설득 전략에 대한 교사의 설명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관련 교육과정** 【 화법과 작문】 설득 - 설득의 화법 - (18) 화자의 공신력을 이해하고 이성적·감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연설한다.

연설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이해하고 이를 적 용할 필요가 있다. 설득은 청자의 태도 변화가 관건이므로 논리에 의한 이성적 설득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다. 화자의 성품, 평판, 전문성 등과 같은 '공신력' 을 구성하는 요소를 이해하고 화자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이성적 설득 전략과 더불어 감성적 설득 전략도 사용하여 논리적이면서도 감동을 주는 연설을 하도록 한다.

- 1) 설득의 3요소 :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 2) 화자의 공신력 (화자의 인격)
- 3) 이성적 설득전략 (논리적 입증의 근거 제시)
- 4) 감성적 설득전략 (청자의 심리상태)
- 5) 논거의 종류 가) 사실논거 나) 소견논거
- 6) 오류의 유형 가) 형식적 오류/비형식적 오류 나) 심리적 오류, 자료적 오류, 언어적 오류

<b>성취기준 / 수준</b>	2914. 담화에 나타난 설득의 전략을 파악하고 평가 한다.	2914-1. 다양한 설득 전략을 설명할 수 있다.	설득 전략이 사용되는 이유, 다양한 설득 전략과 그 효과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2914-2. 담화에 나타난 설득의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설득 담회에서 설득 전략이 드러난 부분을 찾고 어떤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다.
		2914-3. 담화에 나타난 설득의 전략을 평가할 수 있다.	설득 담화의 목적에 비추어 담화에 사용된 설득 전략의 효과를 타당한 근거를 들어 평가할 수 있다.
	<b>교육과정 내용</b>	<b>성취기준</b>	<b>성취수준</b>
310318. 화자의 공신력을 이해하고 이성적·감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연설한다.	화자의 공신력의 본질을 이해하고 공신력을 높이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화자의 공신력의 본질과 공신력을 높이는 방법을 상세하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이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여 논리적인 연설을 할 수 있다.	이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여 긴 연설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다.	
	감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여 감동을 주는 연설을 할 수 있다.	감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여 긴 연설을 감동적으로 할 수 있다.	

**설득적 화법의 본질과 단계**  
 설득적 화법이란, 말하는 이가 말(說)을 사용하여 듣는 이의 반응을 유발하는 의도적인 말하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說)'이란 논증법이나 이성적 감성을 결부시키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작성하고, 이를 음성이나 문자·문자 등의 매체를 통하여 듣는 이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듣는 이의 반응이란 듣는 이의 신념, 태도, 행동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설득적 화법의 준비**  
 설득적 말하기에서도 역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일반적 준비 절차는 정보 전달적 말하기의 그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설득적 말하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여야 한다.

(가) 청중 분석과 논제의 설정  
 설득적 말하기의 목적은 청중의 신념, 태도,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데 있다. 따라서 말하기의 준비에서는 청중이 어떤 신념이나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물론이고 청중의 이러한 신념, 태도,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들까지 분석해야 한다. 다음은 설득에 앞서 청중에 대하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말하는 이가 원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한다. 곧 말하기의 목적을 청중의 신념, 태도,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 중에서 하나를 정한 뒤에 다시 이를 '강화하거나 '교체'하거나 '형성하는 것으로 세분한다. 그 다음 말하기의 목적에 따라 논제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설득이란 곧 말하는 이가 어떤 사실적, 가치적, 또는 행동적 논제(論

백한빛 선생님과 함께하는 -

## 14~16년기출해설특강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임용시험의 길라잡이

www.eduhanvit.com 상담문의 042/584-5331

에듀한빛

題)를 내세우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동시에 감정 등에도 호소하여 청중이 받아들일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설득과 논리**  
 논제가 설정되면 그것을 청중이 받아들일도록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는 설득적 말하기에서 가장 핵심이 된다. 설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저서 <수사학(修辭學)>에서 말했듯이, 논리적 설득 방법(logos), 감성적 설득 방법(pathos) 및 인격적 설득 방법(ethos)이 있다.

논리적 설득 방법이란, 말하는 이의 논제가 '참이거나 '옳다'는 것을 논증(論證)해서 청중에게 보여 줌으로써, 이를 받아들일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으로는 연역법, 귀납법, 유추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증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논리적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논제의 논증상에 논리적 오류가 있으면 청중은 그 논제를 받아들이지 않게 될 뿐 아니라, 듣는 이로부터 반박을 받게 되어 결국 말하기의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논리적 오류에는 논리 규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형식적 오류, 즉 순(純) 논리적 오류가 많다. 그러나 추리 과정 자체보다는 그 전체나 가정 혹은 추리 과정에서 생기는 실질적 오류도 많은데, 이러한 것으로는 선결(先決) 문제 요구의 오류, 논점

백한빛 선생님의  
화해주의 특강

상위(相違)의 오류, 순환 논증 등을 들 수 있다.

**(다) 설득과 감정**

청중을 설득하려면 논제(論題)가 ‘참이거나 옳다’는 것 등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만 청중이 반드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반드시 이성적 또는 논리적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청중의 감성에도 호소하여 말하는 이의 논제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감성적 설득 방법이라고 한다. 이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동기적 소구(動機的訴求) 방법을 들 수 있다. 이는 청중의 동기나 욕구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청중이 말하는 이의 주장이나 논제를 받아들이면, 어떤 욕구들이 충족될 수 있다고 그 보상을 약속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은 특히 광고나 선전 등에서 많이 사용한다. 예컨대 ‘○○○, 산뜻한 그 맛이라는 음료 수 광고도 ○○○를 마시면 산뜻한 맛을 얻을 수 있다고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에 호소한 것이다. 이 밖에도 감성적 설득 방법에는 슬픔, 분노심, 동정심, 행복감, 욕심, 향수, 질투심, 자긍심, 죄책감 등과 같은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소구(訴求) 방법이 있다. 또 예를 들어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위기감을 조성하여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과 같은 위협적 소구(威脅的訴求) 방법도 있다. 그런가 하면, ‘단결이냐, 죽음이냐 식의 양자택일식 소구(兩者擇一式訴求)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선전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들로서 바람직한 방법이 못 된다. 따

라서 이들 방법은 서로간의 어떤 갈등이나 공동 문제를 이성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 하기 위한 설득적 말하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 설득과 화자의 인격**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방법 세 가지 중에서 인격적 방법을 중요시하였다. 이 방법은 말보다 인격으로 청중을 설복(說服)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에 따르면 ‘화자가 높은 지성, 선의, 훌륭한 도덕성 등을 지니고 있으면, 청자들은 그의 말을 잘 믿게 된다는 것이다. 나찌 독일의 선전상(宣傳相)으로서 선전의 귀재(鬼才)였던 괴벨스도 ‘선전에서 그 정보원(情報源)이 권위가 있다고 대중이 생각하거나 존경하면 그 선전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라도 그것을 누가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메시지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말하는 이의 인격이나 권위, 전문성, 신뢰성 등을 통틀어 정보원의 공신력(公信力)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공신력은 물론 말하는 이가 지니고 있지만, 실제로는 듣는 이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청중 앞에서 설득적 말하기를 할 때, 공신력을 높이려면 평소에도 많은 지식과 훌륭한 인격을 갖추어야 하며, 성실하고 진지하며 솔직한 자세로 이야기해야 한다.

<b>채점 요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중을 설득할 때는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요인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해요</li> <li>• 자신의 아픈 사연을 제시하여 청중의 관심을 끌려고 했다고 볼 수 있죠</li> <li>•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전략이 있어요 맞아요 ( ) 전략을 사용했어요 &gt; 청중의 슬픔이나 분노, 자긍심 등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li> </ul> <p>* '설득을 위한 전략' 과 '설득의 요인(요소)' 은 동의어가 아님에 유의하자</p>
<b>답안 작성</b>	<p>㉠ 감성적 (1점) ㉡ 파토스 (1점)</p>

**출제예상**

\* 듣기의 태도에 따른 듣기의 종류 (7차)

① 말하는 이의 처지나 의견을 존중하며 듣는 태도를 지낸다.	듣기의 유형은 크게 분석적 듣기, 공감적 듣기, 대화적 듣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말하는 이의 처지나 의견을 존중하며 듣는 태도는 분석적 듣기와 관련이 있다.
② 말하는 이의 말을 열린 마음으로 듣는 태도를 지낸다.	이는 듣기의 유형 세 가지 중 공감적 듣기(empathetic listening)와 관련이 있다.
③ 여러 가지 형식의 말하고 듣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지낸다.	이것은 듣기의 유형 세 가지 중 대화적 듣기와 관련이 있다.

\* 듣기의 사고과정에 따른 듣기의 종류 (개정차)

<p>[의사소통 전략] ㉗ 의사소통의 목적, 상대의 처지 등을 고려하여 공감하며 듣는다.</p>	<p>의사소통에서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며 듣는 태도를 길러 주기 위하여 설정</p>	<p>주로 사회적 상호 작용이나 정서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소통에서 상대의 관점에서 상대를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의 말을 듣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듣기의 유형은 듣기 과정에서 작용하는 사고의 성격에 따라 공감적 듣기, 추론적 듣기, 평가적 듣기로 나눌 수도 있다. 이 중에서 공감적 듣기는 상대에게 감정 이입을 하여 상대의 말을 들어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소극적인 들어주기'와 '적극적인 들어주기'가 있다. 소극적인 들어주기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명하면서 화자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맥락을 조절하여 주는 격려하기 기술이 중심을 이룬다. 이에 비해 적극적인 들어주기는 청자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화자의 말을 요약, 정리하고 반영하여 주는 구실을 통해서 화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것이다. 공감적 듣기는 상대로 하여금 마음의 벽을 허물고 신뢰와 친밀감을 가지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p>	<p>상대의 말을 수용하면서 비판하지 않고 상대의 말을 집중하여 들음으로써 상대가 가까이 자신의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격려하는 청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지도한다.</p>
<p>[의사소통 전략] ㉘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p>	<p>화법의 성공 여부가 상대의 공감 정도에 있다는 점을 알고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하여 설정</p>	<p>다른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활용해 보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의 동기를 유발하고 상대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상대를 설득하여야 한다. 동기를 유발할 때에는 상대의 정서, 욕구, 가치 등을 고려하여 말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 정서보다는 긍정적 정서가 동기 유발에 더 도움이 된다. 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말의 내용을 상대의 욕구와 관련짓는 것도 필요하다. 매슬로(Maslow)가 분류한 바와 같이 인간의 욕구는 '인전 욕구, 사회적 욕구, 자존 욕구, 자아 실현 욕구' 등으로 위계화되어 있다. 화자는 청중의 욕구 중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말의 내용을 청자의 가치와 관련짓는 것도 중요하다. 가치 체계는 대개 문화적으로 형성되지만 상대에 따라 가치의 위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상대의 동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말의 내용을 주변 가치뿐만 아니라 핵심 가치와 관련지어야 한다.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설득의 전략은 이성(logos), 감성(pathos), 인성(ethos)에 호소하는 전통적인 방법에서부터 사회적 판단 이론이나 인지 균형 이론에서와 같이 개인의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방법, 그리고 사회·문화적 전통에서와 같이 개인의 소속감이나 사회적 자아의 측면에 초점을 두는 방법, 그리고 의사소통 참여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초점을 두는 실용적인 방법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이 존재한다. [지도상 유의점] 상대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담화의 유형] ㉙ 상대의 감정이나 의견에 공감하며 대화한다.</p>	<p>대화에서 필수적인 정서적 반응과 관계 형성의 측면을 강조하며, 공감적 듣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p>	<p>대화는 상호 교섭적 활동이고, 기본적으로 협력의 원리에 따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감적 듣기란,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일단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듣기를 말한다. 공감적 듣기는 상대방과 신뢰와 친밀감을 가지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공감적 듣기의 핵심은 일단 자신의 견해를 개입시키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 주는 '들어주기'에 있다. 들어주기에는 소극적인 들어주기와 적극적인 들어주기가 있다. 소극적인 들어주기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명하면서 상대방이 대화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대화의 맥락을 조절하여 주는 격려하기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적극적인 들어주기는, 상대방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말을 요약 정리하면서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p>	<p>공감적 듣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습자들이 수용적인 태도로 상대방의 말을 집중하여 들으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끌어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관련교육과정] 국어 [7-말-(2)] 대화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호소력 있게 말한다.</p>

백한빛 선생님의  
최 마무리특강

<p>[07개정] 31012, 공감적 듣기의 방법을 이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p>	<p>31012-1, 공감적 듣기의 중요성과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p>	<p>공감적 듣기의 중요성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며 설명할 수 있다.</p>
	<p>31012-2, 대화에서 공감적 듣기를 할 수 있다.</p>	<p>대화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파악하고 그것에 공감하며 들을 수 있다.</p>
	<p>31012-3,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p>	<p>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그 원인을 파악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견을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p>

[09개정] 2917. 대화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듣고 말한다.	2917-1. 대화의 상황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2917-2.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대화할 수 있다.	대화 목적, 대화 참여자들의 관계, 시간, 장소, 대화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화의 상황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대화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상대의 의견이나 감정, 가치관을 파악하여 상대에게 공감하는 대화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2918. 목적과 상대에 따라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며 대화를 나눈다.	2918-1. 목적과 상대에 따라 말하기 방식이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2918-2. 목적과 상대에 따라 대화 방식을 적절하게 조정하며 말할 수 있다.	대화의 목적과 상대에 따라 말하기 방식이 달라지는 이유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대화 목적과 상대에 따라 화제 선택, 내용 구성, 발원 순서 교체 등을 달리하여 대화 방식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예 상 문 제	종류	분석적 듣기(analytic listening) <span style="color: red;">▶</span>	공감적 듣기 <span style="color: red;">▶</span>	대화적 듣기			
	특성	듣는 주체인 자기 자신에게 초점	말하는 상대방에게 초점	'우리' 가 함께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 초점			
	목적	단순히 들은 정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나 견해에 대하여 지적인 재검토 과정을 거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 이입의 차원에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방법 및 효과	<p>상대방이 하는 말을 부분으로 쪼개서 각 부분을 서로 분석하고 검토함으로써 그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p> <p>*이때 '비판적'이란 말의 의미는 무조건 상대의 말을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들은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살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하며, 몇 가지 판단 범주에 비추어 보아서 그 타당성을 검증하여 보고 나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의미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의되고 있는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비판적인 검토를 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신념이나 추론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자신의 신념이나 추론에 대해서도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li> <li>• 메시지 이전에 함축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합리적인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견해와 다른 사람의 견해를 구분할 수 있게 하여 주며,</li> <li>• 성급한 판단을 유보하면서 들은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의사소통자로서의 유연성을 신장시켜 줄 수 있다.</li> </ul>	<p>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는 감정 이입은 일단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p> <p>공감적 듣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용적이고 비판적이지 않으며, 윤리적으로 판단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상대방의 말을 집중하여 들으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가까이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풀어 낼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고 반영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공감적 듣기의 핵심은 자신의 견해를 개입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 주는 '들어주기'에 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극적인 들어주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적극적인 들어주기</td> </tr> <tr> <td>상대방에게 관심을 표명하면서 화자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화자의 말을 요약, 정리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화맥을 조절하여 주며 격려하기 기술</td> <td>청자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화자의 말을 요약, 정리하고 반영하여 주는 구실을 통해서 화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td> </tr> </table> <p>일체의 판단을 유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공감적 듣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어벽을 허물고 신뢰와 친밀감을 가지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p>	소극적인 들어주기	적극적인 들어주기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명하면서 화자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화자의 말을 요약, 정리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화맥을 조절하여 주며 격려하기 기술	청자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화자의 말을 요약, 정리하고 반영하여 주는 구실을 통해서 화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	<p>대화적 듣기 역시 대화를 이어 나가도록 상대방을 격려하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p> <p>상대방이 한 말을 자신이 이해한 내용으로 바꾸어 말함으로써 자신이 제대로 상대방이 의도한 의미를 파악했는지를 확인한다거나 상대방 견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간단히 이야기함으로써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p> <p>또는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명료화하는 질문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자신이 이해한 정도에 대해 더 정확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p> <p>*피드백이란 말한 사람의 메시지에 대해 청자가 표시하는 언어적비 언어적 반응으로, 가능하면 긍정적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다.</p>
소극적인 들어주기	적극적인 들어주기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명하면서 화자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화자의 말을 요약, 정리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화맥을 조절하여 주며 격려하기 기술	청자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화자의 말을 요약, 정리하고 반영하여 주는 구실을 통해서 화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						



4. 참여자 역할 분담

회장	개회 및 폐회 선포, 공정한 진행, 의사 진행 통제 및 관리, 의사 정리
회원	적극적인 의견 개진, 다른 참여자 의견 경청 및 메모, 의안 결정
서기	회의 기록, 회의록 보존
참중	참여자 의견 경청 및 메모, 보충 제언 평가

5. 회의 진행시 유의 사항

- 회장은 회의 진행 책임자이므로 동의안과 관계없는 발언은 재량껏 통제한다.
- 회원은 의안에 관해서 명확한 판단과 분명한 태도를 취해서 간결하게 발언하고 자기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서기는 회의록에 모든 동의안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나자마자 완성하도록 한다.
- 참여자는 회의 규칙을 숙지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여 대등한 자격으로 참여한다.

■ 회의 진행 규칙

1. 발언권 : 회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의안에 대한 찬성자와 반대자에게 발언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

2. 의제의 채택 : 예정된 의제를 채택하거나 예정된 의제가 없으면 동의(원동의)와 재청으로 채택한다. 한 번에 둘 이상의 복수 의제를 채택할 수 없다.

• 동의의 종류

- 동의(제안, 의제) : 회의에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의사일정의 한 항목을 제출하는 것으로 회장을 제외하고 모든 회원이 동의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제출된 동의는 재청을 받아야 의제로 상정된다.
  - 원동의(의안) : 어떤 문제를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게 제출되는 동의이다.
  - 보조 동의 : 원동의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로서 수정 동의(개의, 재개의), 위원회 회부 동의, 토의 시간 제한 및 연장 동의, 토의 종결 동의, 보류 동의 등이 있다.
  - 임시 동의(부대 동의) : 원동의 처리 중 회장이 회의 규칙을 어기거나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동의이다. 동의 철회, 심의 반대, 표결 방법, 의사 진행 등에 관한 동의 등이 있다.
  - 우선 동의 : 원동의 심의 중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의 동의로서 일정 변경, 휴회,

폐회 동의를 말한다.

- 번안 동의 : 일단 가결된 의안을 재심의하지는 동의이다.
- 동의의 순서는 우선 동의→임시 동의→보조 동의→원동의이다.

\* 재청이 필요한 동의

- 원동의, 보조 동의, 임시 동의(찬반 재결의, 규칙 정지만 필요), 우선 동의 (의사 일정 요구는 불필요), 원동의(임시 동의) 취소 및 인준, 미분류 동의의 계류 및 재심

\* 수정이 가능한 동의

- 원동의, 보조 동의(토의 제한, 유기 연기, 위원회 회부, 최초 수정만 가능), 우선 동의(회의 시간의 확정, 휴개, 우선 질의만 가능), 원동의 (임시 동의) 취소 및 인준

3. 회의의 진행 : 회의 참여자들 간에 발언권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지며 발언권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회장을 통해 주어진다.

4. 의결 : 다수결 원칙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나 실제 의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회의 진행 중에 의결 방식을 정할 수도 있다.

■ 사회자의 역할

- 토의 개시와 종료 발언을 한다.
- 토의자들을 소개한다.
- 의제를 제시하고 배경 설명을 한다.
- 시간 배분에 맞게 모든 참여자들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한다.
- 토의자들의 발언을 요약하거나 논의의 흐름을 알려준다.
- 토의자의 주장이 애매할 경우는 질문하여 명확히 한다.
- 특정 참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는다.
-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질문을 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한다.
- 발언에 대한 참여자들의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 주요 발언, 핵심 내용, 결정 사항 등 중요 사항은 기록하며 진행한다.

<b>채점 요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장이 의안 심의 과정에서 누락한 단계</li> <li>• 의장이 질의 응답하면서 잘못된 점 1 가지</li> <li>•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li> </ul>	<b>의안심의과정</b>	의안 상정 ▶ 제안 설명 ▶	<b>질의응답 단계</b> 회원 4의 발언	<b>토의(토론) 단계</b> 토의(토론) 생략됨	<b>표결</b>
<b>답안</b>	<p style="text-align: center;">*질의는 의안에 국한된 문제를 묻는 것으로 의안 이외의 의문나는 것을 광범위하게 묻는 질문과는 다르다</p> <p>㉠ 질의 응답을 마친 후 토의(토론) 단계를 거쳐야 함에도 의장은 토의(토론) 부분을 생략하고 표결 처리 단계로 넘어 갔다 ( 반대 의견이 있을 때 다음 단계에서 다룬다고만 말하고 넘어감 ) (1점)</p> <p>㉡ 회원4의 발언에 대한 의장의 통제는 적절한 행동이 아니다 (1점)</p> <p>㉢ 그 이유는 회원의 발언이 의안인 '체력 활동'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회원4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렴해야 함에도 의장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로 통제하여 회의의 규칙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2점)</p> <p>■ 일반적으로 회의는 토의로 분류하기 때문에 토의의 단계라고 했지만 지문 내용을 볼 때 찬성과 반대로 갈릴 수 있기 때문에 토의보다는 토론의 단계가 생략되었다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p>					

<b>참고 사항</b>	중2 -성취기준 812. 회의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협력적으로 반응한다.	812-1. 회의를 듣고 회의 용어와 진행 규칙을 파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급회의, 학교 회의, 지역 사회 공청회, 모의국회를 활용한 회의에 사용된 회의 용어를 말한다.</li> <li>•회의 진행 규칙을 말한다.</li> </ul>
		812-2. 회의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요점을 파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각 의견들 간에 차이를 분석한다.</li> <li>•회의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장단점을 평가한다.</li> </ul>
		812-3. 회의에서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의에서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해 어떻게 조정하고 타협할 것인지 생각한다.</li> <li>•회의에서 외적 요인을 개입하지 않고 공동의 합의된 의견을 채택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li> <li>•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그 원인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한다.</li> </ul>

백한빛 선생님의  
최 마무리특강

**A-02 - 독서** **박교사는 학생들의 읽기 능력 진단 평가를 실시하였다. <자료>은 박교사가 사용한 평가지의 일부이고 <자료2>는 결과를 기록한 것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밑줄 표시대로 쓰시오 [2점]**  
**관련 교육과정** 독서 과목의 평가 계획과 평가 방법

**평가 계획**

(5) '독서' 평가는 학습자의 실제적 독서 능력을 신장시키고, 독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하며, 독서 수업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계획한다.

**평가 방법: '독서' 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가) 독서 과정 평가 (질의응답, 낭독, 빈칸 메우기), 독서 결과 평가(자유 회상, 탐문 검사, 진위 검사, 선택형 검사), 독서 상위 인지 평가(중요도 평정) 등 독서의 전 과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 (나) 대화, 질문, 관찰, 요약하기, 회상 검사, 자료철(포트폴리오) 등 비형식적 평가를 시행할 때에는 교사의 전문적인 식견과 더불어 사전에 설정한 평가 기준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 (다) 선택형 평가, 빈칸 메우기 등 형식적 평가를 시행할 때에는 제반 변인을 적절히 통제하도록 한다.
- (라) 독서 평가에 사용할 글이나 자료는 교과서의 것과 교과서 밖의 것을 균형 있게 사용한다.
- (마)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할 때에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실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중요도 평정법을 활용하여 요약하기**

글에서 중심 내용이 명시되어 담겨 있는 글일 경우, 글을 구성하는 문장이나 문단에 중요도를 평정하여,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정리하여 요약을 할 수 있다. 어떤 글이든지 각 문단별로 그것에 이루고 있는 문장들의 중요도를 평정하여 중심 내용을 판단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한 편의 글에서 각 문단의 중요도를 평정함으로써 요약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요도 평정 전략은 거시 규칙의 적용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이다.

- [1단계] 각 부분의 중심 내용 파악하여 중요도 평정하기
- [2단계] 글 전체의 전개 방식이나 구조 파악하기
- [3단계] 요약문 작성하기

**이론적 배경** 독서 평가의 다양한 방법  
 [09개정 성취기준 - 영역별 평가 (다) 읽기 영역의 평가는 선다형 검사, 빈칸 메우기 검사, 중요도 평정법, 요약하기, 관찰에 의한 누가 기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이외에도 관찰에 의한 누가 기록의 평가 방법이 있으며, 또 '읽기' 영역의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설문지법이나 면접법 등의 평가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종류	방법	세부 종류	
독서 결과 평가	독서의 결과로 구성한 의미를 확인하는 방법	자유 회상 검사	학생들로 하여금 읽었던 글에 대해서 자유롭게 회상하여 쓰게 하고, 회상된 자료를 분석하여 기억의 양, 내용, 기억이 조직된 방식, 기억 내용을 인출하는 전략 추론의 과정 등을 알아내는 것
		탐문 검사	독서 활동이 끝난 후 학생들에게 글을 읽고 기억한 내용을 인출할 수 있도록 탐색적 질문을 하는 방식
		진위 검사	주어진 글 내용에 대하여 맞는 진술 또는 틀리는 진술을 주고 진위를 관장하게 하는 방법
		선택형 검사	읽은 글의 내용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주어진 몇 개의 항목 중에서 답을 고르게 하는 것
독서 과정 평가	독서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 현상을 관찰하는 방법	대화 및 질의 응답	교사가 학생과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고 학생의 반응을 수집하는 것
		낭독(오독) 분석	학생에게 글을 소리내어 읽게 하고 그 유창성을 평가하는 것 글자의 모양, 문장의 구조, 문맥, 의미 등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빈 칸 메우기	인의로 또는 규칙적으로 글 속의 음절, 단어, 어절 등을 선정하여 이를 빈 칸으로 비우고, 학생에게 읽히면서 그 속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적어 넣게 하는 방법
		관찰	교사가 직접 학생의 독서 행동을 관찰하여 평가의 자료로 삼는 방법
독서 상위 인지 평가	독서 과제에 대한 인식과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요도 평정	글을 읽고 나서 일정한 의미 단위를 대상으로 중요한 정도를 판단하게 하는 평가 방법
		오류 발견	글 속에 오류나 불완전한 요소를 미리 포함시키고, 학생들이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식의 평가
		요약 및 개요 작성	글 내용의 중요도 평정에 기초하여 내용의 추상화와 재조직이 요구되는 방법으로 타당도가 매우 높은 방법이다. 요약은 읽은 내용을 원래보다 적은 분량으로 줄여 재구성하는 것이고, 개요는 글 속의 중요 내용만을 개조식으로 뽑아 내는 것
		사고 기술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소리내어 표현하게 하여 학생들이 글을 읽으면서 사용하는 독서 전략과 의미 형성의 양상을 알아보는 방법
		자기 평가	독서에 사용한 방법, 독서 과제를 대하는 태도, 독서에서 자신의 장단점 등을 스스로 평가하게 하는 방법

**문단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정상적인 문단은 하나의 중심 내용을 갖는다. 설명글에서건 이야기글에서건 어떤 종류의 글에서도 문단이 하나의 중심 내용을 갖는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그래서 문단을 글이 비로소 생명을 갖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하기도 한다. 세포가 생명의 기초단위이듯이, 아무리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의 글이라도 문단이라는 세포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문단의 중심 내용을 이해할 줄 아는 것이 글 이해의 출발점이다.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제(topic)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핵심어 찾기'에서 중심 화제를 찾았던 방법을 활용한다. 그리고 중심 화제에 대한 중심적인 서술내용(comment)을 찾는다. 중심 내용은 핵심어로서의 중심 화제와 달리 문장(주부+서술부, 화제(topic)+서술내용(comment))이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고, 중심 화제와 이에 대한 주요 서술내용을 정리하여 중심 내용을 진술한다.

[1단계] 화제 파악하기

[2단계] 중심 화제와 중심 서술내용 결정하기

[3단계] 중심 내용 진술하기

<p><b>재점 요소</b></p>	<p>【 단서 】 읽기 능력 진단 평가 + 제시된 문단에서 (1) ~ (3)의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 지 √ 표를 하시오 &lt; 글 단위에 유의하며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gt;                  각 '문단'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조직된 평가지로 박 교사는 '중요도 평정법'으로 학생들의 읽기 능력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p>	
<p><b>답안 작성</b></p>	<p>㉠ 중요도 평정법 (1점)                  ㉡ 중심 문장 (1점)</p>	
<p><b>갈라잡이</b></p>	<p><b>■ 중심 내용의 개념 - 중심문장, 주제문, 요지, 중심 생각, 화제</b></p> <p>중심 내용과 대립되는 개념은 세부 내용 또는 뒷받침 내용 등으로 일컬어지는 개념들이다. 이들은 중심 내용을 상술하거나 또는 중심 내용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서 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론적으로 글은 짧은 중심 내용과 긴 세부내용(뒷받침 내용)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p> <p>중심 내용은 주로 한 문장으로 진술된다. 글에서 다루는 주요 화제가 주제부가 되고, 이 화제에 대해 글에서 다루는 지배적인 사실이나 의견이 서술부가 되어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갯벌에 대해 그 종류와 형성 배경, 사는 생물, 생태계의 특성, 바닷물의 정화 기능, 간척 사업의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한 글이 있다면, 그 중심 내용은 중심 화제인 '한국의 갯벌이 주제부가 되고 이하의 내용을 포괄한 내용이 서술부가 되어 '한국의 갯벌은 ~하다.' 또는 '한국의 갯벌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다.'와 같은 형식으로 중심 내용이 진술될 수 있다. 논설문의 경우 논제와 이에 대한 필자의 입장으로 중심 내용이 구성되는데, 논제가 '안락사'이고 필자의 입장이 '허용'이라면 중심 내용은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와 같이 된다.</p> <p>중심 내용은 문단, 내용 단락, 한 편의 글, 한 권의 책 등 문단보다 큰 언어 단위에서 각각 다 생각할 수 있다. 여러 개의 문장으로 만들어진 문단에서 그 중심 내용을 판단할 수 있고, 여러 문단으로 구성된 내용 단락에서 그 중심 내용을 판단할 수 있으며, 여러 내용단락으로 구성된 한 편의 글 또는 한 권의 책 등에서 최종적인 중심 내용을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중심 내용이 말 그대로 여러 가지로 진술된 것에서 그 진술의 중심을 찾는 일이기 때문이다.</p> <p>중심 내용과 비슷하거나 겹치는 용어로 '중심 생각', '중심 문장', '주제', '주제문', '요지' 등이 사용된다. 이들은 중심 내용과 같은 부분이 있으면서도 각각 측면이 있다. '중심 생각'은 필자 중</p>	<p>심으로 정의된 용어로서, 필자보다 글 중심에서 정의되는 '중심 내용'과 구별된다. '중심 문장'은 중심 내용이 또는 중심 내용과 가장 가깝게 글에 진술되어 있는 하나의 문장을 가리키는 것인데, 중심 내용은 이렇게 중심문장으로 진술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독자가 구성해야 할 수도 있다. '주제'는 흔히 문학적인 글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수필이나 소설, 시 등은 그 내용을 압축해서 말하기보다 그런 내용들이 가지는 상징성이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고 본다. 이와 같이 내용을 있는 그대로 압축한다는 느낌보다, 한 단계를 더 거쳐서 '해석'되거나 또는 내용을 세상에 비추어 '일반화'한 것일 때 '주제'라는 말을 쓴다. 설명문이나 논설문에서 '주제'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 것은 이들 글에서는 해석이나 일반화보다 진술된 정보 그 자체에 비중을 두어 이해하기 때문이다. '주제문'은 '중심 문장과 마찬가지로 주제가 문장으로 글에 진술되어 있는 부분을 뜻하는 것이다. 중심 내용과 가장 비슷한 의미역을 갖는 '요지'는 '중요한 뜻 또는 대강의 내용'을 뜻하는 것으로, 진술된 바를 해석이나 일반화 없이 있는 그대로 압축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중심 내용과 같다. 다만 중심 내용은 엄격히 하나의 문장으로 진술되고, '대강의 의미'라는 의미보다 '중심이 되는 의미'이라는 뜻이 더 강하다. 요컨대 중심 내용은 중심이 되는 의미라는 뜻으로서, 설명문이나 논설문에서는 내용을 압축한 요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제가 어떠한가.', '논제가 어떠한가 한다.'는 것이고, 이야기나 시에서는 해석이나 일반화 없이 내용을 압축한 줄거리 정도로 '중심인물이 무엇을 하였다.', '제가 어떠한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p>

백한빛 선생님의  
최 마무리특강

**A-11 독서** 다음에서 김교시는 글을 읽을 때 일어나는 사고 과정을 학생들에게 시범을 보이고 있다. 김교사가 ㉠ ~ ㉢을 통해 지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b>관련 교육과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의 화제나 내용에 관련된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떠올려 독서에 활용한다.</li> <li>•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목적에 맞게 독서 행동을 조절한다</li> </ul>	
㉢ 글의 화제나 내용에 관련된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떠올려 독서에 활용한다.	이 내용은 읽기 전 활동으로서 배경 지식과 경험을 활성화하여 의미 구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예측하며 읽기 전략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독서자료1참고	독서는 독자와 글의 상호 작용이다. 독자의 머릿속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많은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다. 이를 스키마라고 한다. 그러므로 글을 읽기 전에 독자 스스로 적절한 스키마를 활성화하여 글의 내용과 관련지으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독서 이론 중에서 스키마 이론은 독자의 실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능숙한 독자는 자신의 스키마를 활성화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하며, 글에 나타난 새로운 정보를 선택하고, 자신의 예측과 일치하는 정보는 확인을 하며, 예측과 맞지 않을 경우 다른 배경 지식을 탐색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 알게 된 내용을 다시 기억에 갱신하여 저장한다. 이는 글 중심의 독자와 대비된다.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독자인데 의미는 전적으로 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글과 독자의 상호 작용 속에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독자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이 많다고 하여 독자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읽을 글의 화제나 내용과 관련된 지식이 많아야 하고, 또 그러한 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
㉠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목적에 맞게 독서 행동을 조절한다.	이 내용은 읽기 전 중, 후의 과정에서 상위 인지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자신의 독서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 설정하였다.  * 자기 조정 전략	독서 전에 독서 목적을 설정하고 질문을 생성하고 배경 지식을 활성화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독서 활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독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독서는 독자와 글의 상호 작용이며, 빈 공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독자는 늘 특정한 심리적 상태에 놓여 있다. 독자의 마음, 태도, 생리적 상태, 동기 등은 자주 변하며 독자에 따라 서로 다르다. 독서의 대상이 되는 글도 여러 가지 요소가 관여하고 있다. 글의 난이도, 주제, 매체 형태 등이 그러한 요소들이다. 독서 상황도 늘 변화가 심하다. 독서 과제, 독서의 물리적 환경, 소음, 주변의 상태 등도 각기 다를 수 있다. 독자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여러 악기로 구성된 연주자들을 조율하여 좋은 공연을 연출해 내듯이 독서의 여러 가지 요인을 조절해야 한다. 독자는 자신의 독서 과정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점검하고, 독서 목적에 맞게 스스로 독서 행동을 조절하는 상위 인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론적 배경** 능동적인 독자 : 예측하며 읽기 전략, 자기조정 전략

**예측하기 전략**

- (1) 목적 :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진술의 활용을 통하여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아이디어를 예측하기 위한 전략이다.
- (2) 절차
  - ① 읽게 될 텍스트에 제시되어 있는 주요 아이디어와 개념을 식별하도록 한다.
  - ② 읽기 활동을 통하여 지지되거나 도전을 받게 될, 학생들의 경험과 신념을 고려하여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게 한다.
  - ③ 주어진 읽기 자료에 대한 학생들의 기존 이해를 수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세 개 내지 여섯 개의 진술로 구성된 예측 안내 활동 자료를 작성한다.
  - ④ 학생들에게 예측 안내 활동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적게 한다. 먼저, 학생 개인별로 예측 안내 활동 자료를 완성하게 한 후에, 소집단이나 전체 집단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선하도록 한다
  - ⑤ 학생들로 하여금 예측 안내 활동 자료에 제시된 각 진술을 확인하거나 정교화하거나 거부하는 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주어진 읽기 자료를 읽게 한다.
  - ⑥ 주어진 읽기 자료를 다 읽은 후에 예측 안내 활동 자료에 제시된 각 진술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바뀌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 협동학습 집단에서 각 진술의 거부 혹은 수용의 근거가 되는 정보가 텍스트의 어디에 있는지를 제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각 진술을 적절하게 수정하도록 한다.
- (3) 특징
  - 읽기를 시작하기 전에 읽기 자료의 주요 아이디어에 대한 단서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 학생들의 글을 읽기 전에 글의 핵심 내용에 대한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학급 동료들과 그러한 배경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
  - 학생들은 읽기 자료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확인하거나 수정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동기화될 수 있다.
  - 주요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오히려 근거가 읽기 자료에 대한 독자와 토의를 통하여 명료하게 밝혀질 수 있다.
  - 초중고 전 학년의 읽기 지도 및 내용교과 학습에 두루 적용될 수 있다.
- < 과학 교과에서의 예측하기 안내 전략 활용의 예 >

- 학습 내용 : 산성 비
- 절차
  - 1) 산성비와 연관되는 문제에 관한 다음 진술을 읽는다.
  - 2) 자신이 동의하는 진술의 왼쪽에 ○ 표를 한다.
  - 3) 산성비와 그 영향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각 진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할 근거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다음 각 진술에 대하여 토의를 할 때 자신의 생각을 발표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 ① 산성비로 인하여 물고기가 죽는다.
    - ② 산성비의 일차적 원인은 자동차 배기 가스 때문이다.
    - ③ 산성비 방지로 인하여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
    - ④ 산성비 문제는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 ⑤ 산성비는 이황산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 ⑥ 산성비를 통제하지 못하면 심각한 환경적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자기 조정 전략

- (1) 목적
- 학생들로 하여금 독서의 과정에서 이해의 내용과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 상위인지 능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한 전략이다.
  -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읽고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도와 주기 위한 전략이다.
- (2) 절차
- ① 지도 교사는 읽기 자료의 한 문단이나 한 부분을 학생들과 함께 읽으면서 자신의 이해 과정을 소리 내어 말하는 시범을 보여 준다. 학생들로 하여금 같은 문단 또는 부분의 글을 읽으면서 교사의 시범을 참고하여 자신의 이해 과정을 소리내어 말하도록 한다. 해당 문단을 읽은 후에 는 그 부분에 대해 이해한 것에 대해 논평하고, 끝 부분에 적절한 표지를 붙이도록 한다. 지도 교사는 계속해서 다음 문단을 읽고, 복잡하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물음표로 표시를 하는 등 시범을 보이고, 학생들은 그 시범을 참고하여 해당 문단을 읽으면서 이해의 과정을 소리내어 말하도록 한다.
  - ② 지도 교사는 글 전체를 학생들과 함께 다 읽은 다음에,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글 전체의 내용을 설명하는 시범을 보인다. 각 문단에 표시된 물음표를 찾아 그 부분의 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생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한다. 물음표가 표시된 부분들 중에서 어떤 부분은 글 전체의 내용을 다 읽은 후에야 이해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이해가 되었을 경우에는 물음표를 적절한 표지로 바꾸도록 한다. 여전히 남아 있는 물음표 표시 부분에 대해서는 학급 구성원들과 의 토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 ③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자기 조정 절차를 소개한다. 교과서에서 새로운 글을 선정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조정 절차 도식을 활용하여 글을 읽어 나가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지도 교사는 '문제 해결' 이후의 단계들을 해결하는 법을 시범 보이고, 학생들이 따라해 보도록 지도한다.

\* 자기조정 절차

1. 글읽기 : 글의 일정 부분을 읽는다. 각자 내용을 이해한 문단 끝에 '√' 를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단 뒤에는 물음표를 한다.
  2. 해석하기 : 각 문단이나 부분의 끝에서 읽기를 멈추고, 지금까지 이해한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설명해 본다. 그리고 지금까지 읽은 부분을 되돌아본다.
  3. 문제 해결하기 : 물음표가 표시된 각 부분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본다.
    - 가. 지금은 이해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읽는다.
    - 나. 그래도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왜 장애가 생기는지 생각해 보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생각해 본다.
      - 단어가 어렵거나 친숙하지 않는가?
      - 문장이 어렵거나 복잡하게 진술되어 있는가?
      - 거의 산행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주제인가?
    - 다.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적용해 본다.
      - 용어 해설집이나 참고서를 이용한다.
      - 그림이나 도표를 자세히 살펴본다.
      - 단원의 다른 부분을 참고한다.
    - 라.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나 혼란스러운 내용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설명해 본다.
    - 마. 선생님과 동료 학생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④ 새로운 읽기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조정 절차를 참고하여 짝과 함께 읽기 활동을 하도록 한다.
- (3) 특징
-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 학생들은 글을 읽고서 이해하는 내용과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분명히 식별할 수 있게 된다.
  - 학생들은 글 전체를 읽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자기 점검과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p><b>채점 요소</b></p>	<p>김교사: 여러분,자난 시간에...능숙하게 읽기 위해서는 읽기 전략을 활용하고 - (가) 자신의 읽기 과정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 (나)</p> <p>㉠, ㉡에서 김교사가 무엇을 단서로 하여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지 서술할 것 ㉢, ㉣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읽기 전략이 무엇인지 쓰고, 전략의 읽기 교육적 의의를 서술할 것</p>	<p>김교사의 (가)와 (나)의 발언을 고려하여 답안 작성을 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화) 표지 (1점)</li> <li>• 예측하며 읽기 전략 (1점)</li> <li>• 자기 조정 전략 (1점)</li> <li>•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독서 목적에 맞게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 능동적인 독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1점)</li> </ul>
<p><b>답안 작성</b></p>	<p>㉠ 예측하며 읽기전략 : 이에 대해, 지금까지 등과 같은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예측하며 읽기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 자기 조정 전략을 활용하여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자신의 독서 목적에 맞게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 (상위 인지능력) 을 길러 능동적인 독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p>	
<p><b>예상문제</b></p>	<p>읽기의 단계에 따른 읽기 전략 (교수-학습법 / 교수-학습의 원리 / 교사-학생 활동 / 지도상 유의점 / 학습 형태)</p>	

백한빛 선생님의  
최 바우리 특강

<b>B01- 독서</b>	<b>김교사는 “글에 나타난 표현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라는 학습 목표로 &lt;가&gt; 제재에 대한 &lt;나&gt; 학습 활동지를 제작하였다. 김교사의 학습 활동 구성 방식을 &lt;작성 방법&gt;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b>
<b>관련 교육과정</b>	[국어II] 독서의 기능 - 사실적 이해 ④ 필자의 의도, 목적, 숨겨진 주제 등을 추론한다. 추론적 이해 ④ 필자의 의도, 목적, 숨겨진 주제 등을 추론한다.

**글의 사실적 이해 단계 : 중심 내용 파악기**

④ 지식과 경험, 글에 나타난 정보, 맥락 등을 이용하여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p><b>이 내용은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한 내용이다.</b></p> <p>글의 중심 내용은 글 전체에 나타난 생각의 핵심이 되는 요지를 말한다. 글의 내용 요약하기, 글의 주제 파악하기, 글의 요지 파악하기, 글의 핵심어 파악하기 등은 모두 이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글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는 독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활동이다. 글의 소단위를 대상으로 부분적인 내용을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글 전체를 대상으로 중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면 제대로 독서를 하었다고 할 수 없다. 글의 주제를 드러내는 방법은 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설명문이나 논설문 등은 글의 주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문학적인 글은 주제가 암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p> <p>독자의 지식과 경험, 글에 나타난 정보, 맥락 등은 글의 중심 내용을 구성하는 데 관여하는 기본 요소이다. 같은 글이라도 독자에 따라 글, 독자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구성되는 글의 중심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글에 나타난 정보도 중심 내용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어떤 독자라도 전적으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만 글을 읽지는 않는다. 글에 나타난 정보를 토대로 글을 처리한다. 맥락 요인도 글의 중심 내용 파악에 중요하게 기여하는 요인으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다.</p>		
	310417. 글의 구성단위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310417-1. 글을 구성하는 단위를 알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310417-2. 글 구성단위 간 관계를 단서로 활용하여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글을 읽고 글을 구성하는 소단위의 내용을 대상으로 글의 정보를 확인하고, 그들 사이의 의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글을 읽고 핵심 단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문단 간의 관계 등을 정리하여,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글의 추론적 이해 단계 : 필자의 의도 파악기**


추론적 이해 ④ 필자의 의도, 목적, 숨겨진 주제 등을 추론한다.	<p><b>이 내용은 필자의 의도, 목적, 숨겨진 주제 등과 같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추론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 설정하였다.</b></p> <p>독서는 글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내용만을 파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문학 작품이나 광고문, 서간문, 서평, 논평, 정치 담화문 등과 같은 글에서는 필자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필자의 의도, 목적, 주제 등을 숨겨 놓을 수 있다. 필자는 글을 통해 독자의 행동을 변화를 가져오기를 의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절약을 알리는 공인 광고문에는 시민들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행동에 동참해 줄 것을 의도하고 있다. 정치 담화문에는 정책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정치적 태도를 우호적으로 변화시킬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문학 작품에는 다양한 주제가 함축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같은 사건을 다룬 신문 기사도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표제, 기사의 위치, 관련 사진이나 도표의 제시 방법 등을 달리함으로써 여운 형성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 이 내용은 이처럼 글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의도, 목적, 숨겨진 주제 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를 의도하고 있다.</p> <p>앞의 ㉠ 지식과 경험, 표지, 문맥 등을 이용하여 선택된 내용을 추론한다.' 에서 다룬 내용은 글의 일부분을 대상으로 한 미시적이고 자동적인 추론이다. 이에 비해 이 항목에서 다루는 내용은 글 전체를 대상으로 독자가 지식과 경험을 활성화하고 글 전체와 맥락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기사적인 과정이다.</p>		
	310418. 필자의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 선택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는다.	310418-1.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문맥을 파악하며 글을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다. 310418-2. 독자의 배경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내용을 추론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문맥을 이해하고, 글의 의도나 숨겨진 주제, 필자의 가치관이나 관점, 선택된 내용 등을 추론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고 독자의 배경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글의 의도나 숨겨진 주제, 필자의 가치관이나 관점, 선택된 내용 등을 추론할 수 있다.

**이론적 배경** 학습 활동1, 2를 근거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김교사의 수업 설계의 전 과정을 서술하시오

활동 1의 단계	▶	활동 2의 단계						
<p>사실적 이해 단계로 표현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 요인을 고려하여 응집성 있게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활동 1-1, 활동 1-2</b></p> <p>단락의 핵심어에 대한 명시적 질문을 통해 각 단락의 요지를 정리한 후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사실적 이해의 단계와 추론적 이해의 단계 중 어느 단계를 먼저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p>	▶	<p>추론적 이해의 단계로 중심 내용을 파악한 후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동원하여 글에 쓰인 대상을 표현하는 어휘를 통해 글에 담긴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의미를 재구성하는 단계이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00a651; color: white;">활동2-1</th> <th style="background-color: #00a651; color: white;">▶</th> <th style="background-color: #00a651; color: white;">활동2-2</th> </tr> </thead> <tbody> <tr> <td> <p>대상을 표현하는 어휘에 대한 함축적 질문을 통해 대상에 대한 필자의 태도가 긍정적인 지 부정적인 지를 추론하여 필자의 의도를 파악한다</p> </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p>필자의 표현 의도에 대한 추론의 결과가 적절한 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는 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는 지를 살펴 본다</p> </td> </tr> </tbody> </table>	활동2-1	▶	활동2-2	<p>대상을 표현하는 어휘에 대한 함축적 질문을 통해 대상에 대한 필자의 태도가 긍정적인 지 부정적인 지를 추론하여 필자의 의도를 파악한다</p>	▶	<p>필자의 표현 의도에 대한 추론의 결과가 적절한 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는 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는 지를 살펴 본다</p>
활동2-1	▶	활동2-2						
<p>대상을 표현하는 어휘에 대한 함축적 질문을 통해 대상에 대한 필자의 태도가 긍정적인 지 부정적인 지를 추론하여 필자의 의도를 파악한다</p>	▶	<p>필자의 표현 의도에 대한 추론의 결과가 적절한 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는 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는 지를 살펴 본다</p>						

채점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2와 구별되는 활동1의 학습활동으로서의 성격 ▶</li> <li>• 활동1이 필요한 이유 ▶</li> <li>• 활동2-1에서 2-2로 가는 구성 방식을 독해 수준과 관련지어 설명할 것 ▶</li> </ul>

- 글의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사실적 이해의 단계이다 (1점)
- 글의 중심 내용 파악은 표현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한다 (1점)
- 2-1은 학생들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여 대상을 표현하는 어휘의 추론을 통해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1점)
- 2-2는 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는 지, 숨겨진 다른 의도는 없는 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단계이다 (1점)

답안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쓴이의 표현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문단의 핵심어에 대한 명시적 질문을 통해) 글의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사실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li> <li>• 학습 활동2는 학생들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여 각 단락에 쓰인 대상을 표현하는 어휘에 담긴 태도를 통해 필자의 의도를 추론 해 본 후(2-1) 학생들의 독해 수준을 고려하여 표현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는 지, 다른 숨겨진 의도는 없는 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단계(2-2)로 이행하도록 조직해 보아야</li> </ul>

교육과정 내용 [기출및예상]	성취기준	성취수준
310417. 글의 구성단위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310417-1. 글을 구성하는 단위를 알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여러 가지 글을 읽고 글을 구성하는 소단위의 내용을 대상으로 글의 정보를 확인하고, 그들 사이의 의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310417-2. 글 구성단위 간 관계를 단서로 활용하여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글을 읽고 핵심 단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문단 간의 관계 등을 정리하여,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310418. 필자의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는다.	310418-1.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문맥을 파악하며 글을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다.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문맥을 이해하고, 글의 의도나 숨겨진 주제, 필자의 가치관이나 관점,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할 수 있다.
	310418-2. 독자의 배경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내용을 추론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고 독자의 배경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글의 의도나 숨겨진 주제, 필자의 가치관이나 관점,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할 수 있다.
310419. 글의 내용이나 자료, 관점 등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는다.	310419-1. 글을 읽고 내용의 타당성과 공정성,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	글을 읽고 내용의 타당성, 공정성, 자료의 적절성 등에 대해 근거를 들어 조리 있게 판단할 수 있다.
	310419-2. 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반박할 부분을 찾아 필자의 생각을 비판할 수 있다.	글을 읽고 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반박할 부분을 찾아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310420.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 그 내용을 감상하며 읽는다.	310420-1.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글을 읽고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그 이유를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310420-2.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생각과 비교하며 내용을 감상할 수 있다.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한 부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생각과 비교하고, 독자의 관심이나 수준, 독서 상황에 따라 같은 작품이라도 느낌이나 해석, 가치 부여가 다양함을 이해할 수 있다.

백한빛 선생님의  
최 마무리특강

교육과정 내용 [기술및예시]	성취기준	성취수준
310421. 글의 화제나 주제, 필자의 관점 등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한다.	310421-1. 글을 읽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글의 화제나 주제, 필자의 관점 등을 찾아 그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
	310421-2. 글을 읽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글을 읽고 개인적 혹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리고, 이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의 관계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의 관련성이나 차이점을 밝히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이들 연구에서 사실적 이해와 관련지어, 추론적 이해에 대하여 제기된 질문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사실적 이해는 추론적 이해에 선행하는가?
- 추론적 이해는 사실적 이해보다 더 어려운가?
- 추론을 많이 요구하는 글은 그렇지 않은 글보다 더 어려운가?

첫째, 사실적 이해는 추론적 이해에 선행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추론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이다. 어떤 추론은 이해보다 먼저 이루어지고, 다른 추론은 이해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검사가 이루어지거나 이후 다른 상황에 적용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질 수도 있다. 요컨대, 추론은 단일 개념이 아니다(Kintsch, 1993). 추론적 이해는 사실적 이해보다 먼저 일어나거나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추론적 이해는 원래 사실적 이해보다 어려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긍정하는 입장이 있고, 이를 부정하는 입장이 있다. 긍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 추론적 이해는 사실적 이해보다 원래가 더 어려우며, 내용 난이도가 항목 유형별로 조절되거나, 추론 전략을 지도한 이후에도 여전히 추론적 이해는 더 어려우며 반응 시간도 더 길다. 부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 추론의 양이나 유형이 난이도를 예언하는 것은 아니며 난이도는 처리될 정보의 양과 작동 기억 속에 간직해야 할 대안의 수에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글이 추론을 요구하면 더 어려운가 하는 문제도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론을 요구하는 글이 더 어렵다는 견해로는 브리튼과 굴고즈(Britton & Gulgoz, 1991)를 들 수 있는데, 그들은 설명적 글에서 추론을 많이 하게 되면 학습에 장애가 되고, 학생들은 추론을 덜 해도 되는 글에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부분적 응집성에 기여하는 참고적인 추론을 들어 설명하였다. 반대로 추론 요구가 많아도 적절한 배경 지식이 있다면 상관이 없다는 견해와 설명적 글에서 추론을 하는 것이 읽기 시간을 더 걸리게 하지만, 예측이 맞아떨어질 때는 오히려 더 빨리 읽힌다는 견해가 있다. 추론은 난이도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절대적인 요인은 아닐 수 있다. 왜냐 하면, 그 추론에 필요한 정보를 글이나 지식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추론은 글 이해에 장애가 되지만 어떤 추론은 글 이해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한철우 외(2002), 과정중심독서지도, 교학사, p.52-53.)

■ 필자의 의도나 관점 추론하기

참고문

○. 필자의 의도란 무엇인가?

필자는 글을 생산하는 사람이다. 필자는 목적이나 이유가 있어서 글을 쓴다. 필자의 의도는 필자가 글을 쓰려는 목적이나 이유이다. 필자는 글을 쓰려고 계획할 때 무슨 의도로 글을 쓸 것인지를 미리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독자는 글을 읽을 때 필자가 무슨 의도로 그 글을 썼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글을 읽는다는 것은 필자가 글을 쓴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이유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필자의 의도에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그는 독자가 모르는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려고 글을 쓸 수도 있다. 그는 그가 발견한 지식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글을 쓸 수도 있다. 그의 의견에 다른 사람이 동의하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 줄 바라기 때문에 글을 쓸 수도 있다. 때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상상적으로 경험한 느낌이나 정서를 다른 사람도 상상하고 경험하게 하려고 글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필자의 의도는 크게 설명, 논증, 설득, 느낌과 정서 표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필자의 의도 파악은 추론적 이해와 관련되는가?

필자의 의도를 알아낸다는 것은 글 자체보다는 필자를 읽는 것과 관련된다. 필자는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자신의 쓰기 의도를 최대한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독자가 그저 뜻이나 내용 또는 그 표현 형식을 읽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서술을 살피려 삼아 필자가 왜 이 글을 쓰는지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거슬러 올라가 살펴야 안 된다. 필자의 의도는 글이라는 장치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므로 독자는 직접 드러난 글을 통해 필자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살피게 된다. 그러므로 필자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 알려진 것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것, 알려지지 않은 것을 파악해 가는 추론의 과정에 해당한다.

○. 읽기에서 필자의 의도를 추론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글의 내용을 파악하면 됐지 왜 굳이 필자의 의도까지 살피고 추론해내야 하는가? 필자의 의도를 알아낸다는 것은 글을 읽는다는 것보다는 필자 자체를 읽는다는 것과 보다 관련된다. 능동적인 독서는 읽기의 대상을 글에 머물지 않고 글의 이면에 있는 필자까지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 읽기의 자세가 능동적일수록 독자가 읽을 수 있는 것이 더 넓고 깊어진다. 따라서 글 읽기는 글 차원에서 글 안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글의 이면에서 필자를 하고자 애쓰는 필자를 살필 수 있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필자의 의도를 살피고 추론해 내는 일과 관련된다. 따라서 필자의 의도 추론하기는 능숙한 독자가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중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이 아무 의도 없이 글을 쓰지는 않는다. 비록 특별한 의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무의도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글을 쓰는 의도인 것이다. 그래서 필자의 의도를 추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글을 읽을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대화에서 청자가 화자의 심리를 들여다보듯 독서에서 독자는 필자의 의도를 살펴야 한다.

**필자의 이면적 의도 추론하기**

(1단계) 먼저 글에 드러나 있는 의도를 찾게 한다. 의도가 글에 직접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필자가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말과 같다. 비문학적인 글에서 필자의 목소리가 직접 드러날 때는 ‘ ~ 생각한다, ~ 믿는다, ~ 주장한다와 같은 진술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 기타 단정적 표현이 쓰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교사가 이러한 종류의 진술어나 표현을 간과하지 않고 필자의 목소리 및 의도와 관련지어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2단계) 앞에서 찾아놓은 내용을 보고 그것이 필자가 의도하는 전부가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필자는 자신의 의도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표면적으로 의도하는 바와 달리 실제로 의도하는 바를 깊이 묻어 두기도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앞에서 찾아놓은 것이 글의 일부분에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직접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속으로 의도하는 바가 또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을 밝히는 추론적 이해와 관련된다.

**낱말과 표현을 통해 필자의 의도 살피기**

필자의 의도는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글 속에 숨어 있는 경우도 많다. 독자는 행간에 숨어 있는 필자의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글의 표면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단서

가 도움을 준다. 이러한 단서에는 필자가 사용한 낱말, 구사한 표현 등의 언어적 장치가 대표적이다. 이밖에 그림, 사진, 삽화, 도표 등의 시각적 장치 등도 있다. 낱말이나 수사적 표현을 통해 필자의 의도를 추론하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같은 화제를 다루면서 설명, 설득, 논증, 느낌과 정서 전달이라는 큰 틀에서 필자의 의도가 같은 글을 준비하고, 각 글에서 필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는다.

(2단계) 각 글의 필자의 의도를 말하되 앞 단계에서보다는 구체적으로 볼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지시 대상이 같지만 낱말이나 표현이 다르게 된 부분을 지적하게 한다.

(3단계) 다르게 사용된 낱말이나 표현을 보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필자의 의도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게 한다.

(4단계) 이상을 바탕으로 필자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게 한다.

교사용tip. 낱말이나 표현을 통해 필자의 의도를 추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발문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 필자가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은 어떤 의도에서일까?
- 필자가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은 어떤 의도에서일까?
- 필자는 이런 제재를 고른 것은 어떤 의도에서일까?
- 필자가 제재를 이렇게 늘어놓은(배열한) 데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
- 필자가 장면을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은 어떤 의도에서일까?
- 필자가 이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일까?

백한빛 선생님의  
최 마무리특강

**A-03 - 작문** (가)는 윤교사가 만든 학습지의 일부이고 (나)는 학습지를 화제로 동료 교사와 나눈 대화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b>관련 교육과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작문의 성격</b> ②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작문의 중요성을 이해한다.</li> <li>■ <b>작문의 맥락 파악</b> ① 작문의 목적, 주제, 독자 등 작문 상황을 분석한다.</li> <li>■ <b>작문의 맥락</b> ② 작문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글의 내용 선정, 조직과 전개,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li> </ul>
----------------	----------------------------------------------------------------------------------------------------------------------------------------------------------------------------------------------------------------------------------------

이 문제는 출제자가 문제만들려고 생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문제네요^^  
 제시된 학습목표가 쓰레기인 경우는 첨이에요 '학습 목표' 없이도 풀 수 있죠?  
 그래도 관련 교육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1) 주제, 목적, 독자를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계획하고, 점검하고 조정한다.

쓰기는 구체적인 쓰기 상황과 맥락 안에서 주제, 목적, 독자 등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목표 지향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다. 이 성취 기준은 5-6학년군의 '쓰기의 과정을 이해하고 과정에 따라 글을 쓴다.'가 좀 더 발전되어 제시된 것으로, 계획하기, 아이디어 생성하기, 아이디어 조직하기, 초고 쓰기, 고쳐쓰기와 같은 일련의 쓰기 과정을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점검·조정할 수 있는 쓰기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 지도한다

(가) 맥락의 파악	① 작문의 목적, 주제, 독자 등 작문 상황을 분석한다.
	② 작문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파악한다.
	③ 작문 과정에서 지켜야 할 작문의 관습을 파악한다.
(나) 작문 계획	① 작문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고 분석한다.
	② 작문 과정에 대해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예측한다.
	③ <b>작문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준비 하고 내용 생성을 계획한다.</b>
(다) 작문 내용 생성	④ 글의 제목이나 대략적인 내용을 떠올리고 내용구조 및 전개를 계획한다.
	① 글의 제목과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삼아 체계적이며 창의적인 사고 활동을 전개한다.
	② 작문 상황 및 작문 계획에 맞게 글의 중심 내용을 조정하고 구체화한다.
	③ 작문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활용하여 중심 내용을 뒷받침할 세부 내용을 생성한다.
	④ 작문 계획과 생성한 내용을 비교·검토하여 생성한 내용을 수정 보완 한다.
	⑤ 생성한 내용을 검토하여 작문 계획을 조정하고 구체화한다.

**이론적 배경** 아이디어 생성하기 단계에서 미숙한 필자를 지도할 때의 유의사항과 관계된 문제를 동료교사 장학 문제로 변환한 문제다 【 '계획하기(수사론적 문제 탐색하기) > 내용생성하기' 3쪽 도표 참고할 것】  
 \* 형식주의 작문교육관에 따른 결과 중심의 쓰기 지도, 인지적·사회적 구성주의 작문교육관에 따른 과정 중심의 쓰기 지도, 장르 / 대화 중심의 쓰기 지도 등이 있다

**채점 요소** ■ **장교사의 응답에 모든 단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서답형은 '단서 찾기' 연습에 집중해야 합니다~ㅋ

- 활동2 부분에 대한 장교사의 지적 : 필자 중심의 글쓰기가 될 것을 우려 ■ (인지적 구성주의 작문교육) 작문의 변인을 추가하길 요구하고 있다. > **예상 독자 (1점)**
- 활동3 부분에 대한 장교사의 지적 : 내용 생성할 때 인지과정 모형의 장점 활용권장 ■ (머릿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의 총체) > **학습지의 스키마 / 배경지식 활용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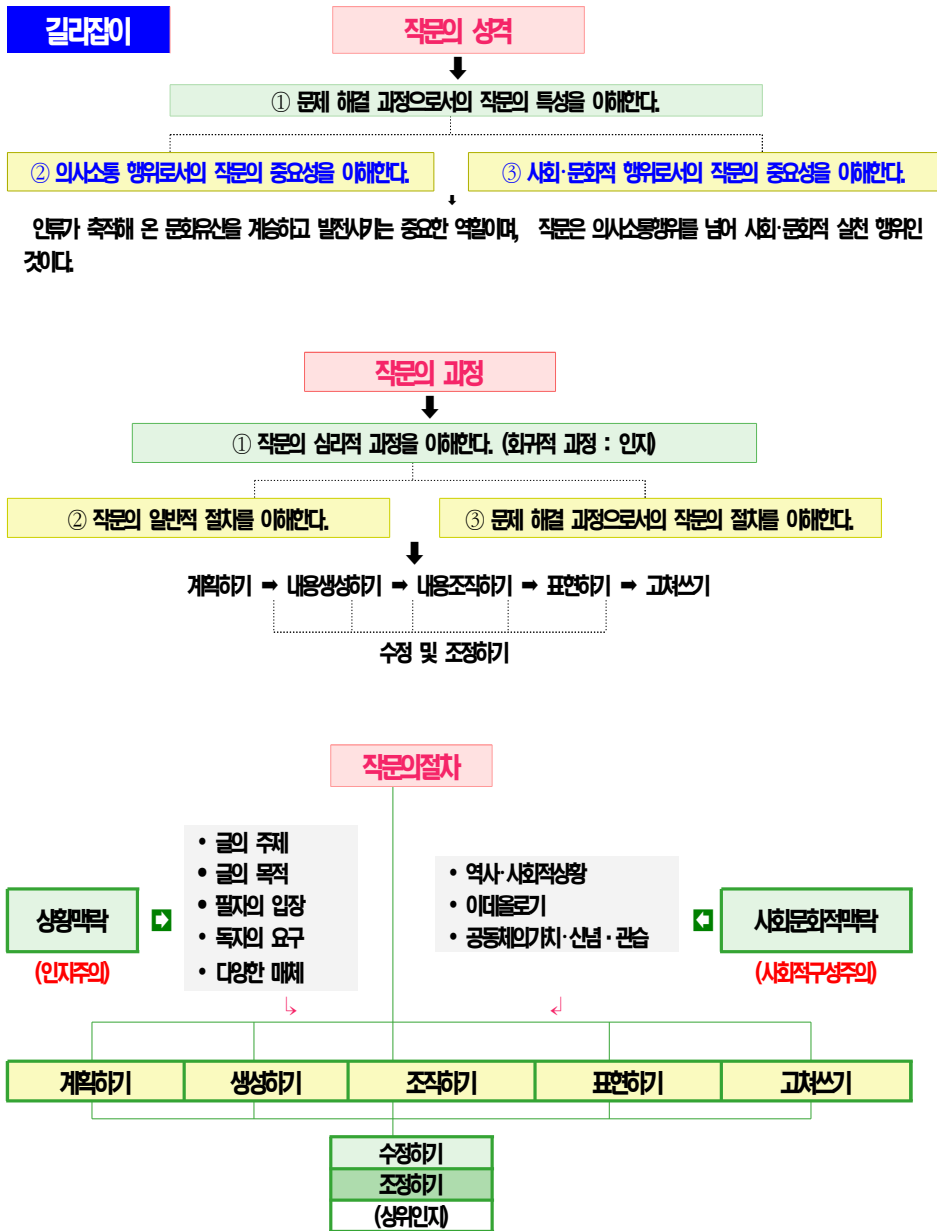
**답안 작성** ㉠ **예상독자** ㉡ **배경지식**

㉠의 경우 '필자'가 아니라 '필자의 입장' 이란 표현과 관련, '예상독자 요구, 기대수준, 예상독자 분석' 등도 허용 채점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은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스키마'도 답이 되겠지만 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으로 볼 때 '배경지식'이 정확한 답안

이 문제는 각 작문교육관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활동 2에 제시된 '쓰기 상황'에서 '예상 독자'를 누락시킨 점, 장교사의 조언 중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의 총체' 등의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인지주의 작문 교육관에 따른 쓰기 지도를 권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시된 지문으로 볼 때 윤교사는 형식주의 작문 교육관에 따른 쓰기 수업을 설계하였다 )

<b>출제인도</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2f1;">활동 내용</td> <td style="background-color: #e0f2f1;">활동1</td> <td style="background-color: #e0f2f1;">활동2</td> <td style="background-color: #e0f2f1;">활동3</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2f1;">쓰기 단계</td> <td style="background-color: #e0f2f1;">계획하기 (주제 설정하기)</td> <td style="background-color: #e0f2f1;">작문의 상황(변인)</td> <td style="background-color: #e0f2f1;">내용 생성하기 (글감수집, 내용의선정)</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2f1;">교육과정관련</td> <td style="background-color: #e0f2f1;"></td> <td style="background-color: #e0f2f1;">                     형식주의의 관점과 인지·사회구성주의의 관점 쓰기를 구별하는 기준이다                      독자가 포함되는 지, 사회·문화적 맥락이 포함되는 지...                 </td> <td style="background-color: #e0f2f1;">                     필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 ( '아이디어, 창의적'이라는 용어로 변형됨)                      요계 직·간접체험으로 변형되거나 관찰,여행,대화...등으로 표현됨                 </td> </tr> </table>	활동 내용	활동1	활동2	활동3	쓰기 단계	계획하기 (주제 설정하기)	작문의 상황(변인)	내용 생성하기 (글감수집, 내용의선정)	교육과정관련		형식주의의 관점과 인지·사회구성주의의 관점 쓰기를 구별하는 기준이다 독자가 포함되는 지, 사회·문화적 맥락이 포함되는 지...	필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 ( '아이디어, 창의적'이라는 용어로 변형됨) 요계 직·간접체험으로 변형되거나 관찰,여행,대화...등으로 표현됨
활동 내용	활동1	활동2	활동3										
쓰기 단계	계획하기 (주제 설정하기)	작문의 상황(변인)	내용 생성하기 (글감수집, 내용의선정)										
교육과정관련		형식주의의 관점과 인지·사회구성주의의 관점 쓰기를 구별하는 기준이다 독자가 포함되는 지, 사회·문화적 맥락이 포함되는 지...	필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 ( '아이디어, 창의적'이라는 용어로 변형됨) 요계 직·간접체험으로 변형되거나 관찰,여행,대화...등으로 표현됨										

선다형 시험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요. 기출문제 철저 분석, 교육과정의 각 항목들을 이론서를 동원해 독파하고 학습지도안 작성해 보기... 요거만 1년간 열심히 하면 지금보다 훨 나아질텐데...



작문의 경우 다음 표를 참고하여 다양한 목적이나 글의 특성을 정리하면 된다 (여러 가지문종 자료참고)

성격	문제해결(사고) 과정	의사소통행위	사회문화적 과정								
가능	각 단계별 문제해결 전략		주된 상위인지 전략과 활동								
계획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요인</li> <li>• 주제설정</li> </ul>	주제설정전략 주제설정절차 주제설정방법 주제의요건	<table border="1"> <tr> <td>• 독자요인</td> <td>• 맥락요인</td> </tr> <tr> <td>• 필자요인</td> <td>(• 공동체적가치)</td> </tr> <tr> <td>• 예상독자분석</td> <td>(• 공동체적관습)</td> </tr> <tr> <td>• 필자분석</td> <td></td> </tr> </table>	• 독자요인	• 맥락요인	• 필자요인	(• 공동체적가치)	• 예상독자분석	(• 공동체적관습)	• 필자분석	
• 독자요인	• 맥락요인										
• 필자요인	(• 공동체적가치)										
• 예상독자분석	(• 공동체적관습)										
• 필자분석											
내용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감 수집</li> <li>• 내용 선정</li> </ul>	내용생성원리 내용요소요건 정보수집전략 정보수집절차 정보수집방법 정보(자료)종류 내용선정원리 내용선정절차 내용선정방법	정확성, 충실성, 풍부성, 객관성, 신뢰성, 윤리성 (글 쓰려는 목적이나 글의 특성에 따라 적용)  ■ 매체특성을 고려한 매체활용 인쇄매체, 통신매체, 방송매체 ■ 윤리성 : 출처밝히고 표절금지								
내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의구성</li> <li>• 내용전개</li> </ul>	내용조직원리 글의구성원리 내용전개원리	단계성, 통일성, 일관성, 응집성, 강조성, 적절성 개념, 종류, 특성, 절차, 방법 (글구조 이론 참고: 글의 종류와 특성 고려)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장</li> <li>• 단어</li> </ul>	표현과전달원리 <보조자료활용>	명료성(정확성), 간결성, 평이성, 객관성.. (글 쓰려는 목적, 글의 특성에 따라 적용)								
고쳐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단위</li> <li>• 단락단위</li> <li>• 문장단위</li> <li>• 단어단위</li> </ul>	고쳐쓰기원리	첨가, 삭제, 재구성의 원리								
태도											
가치의중요성	동기와 흥미	쓰기의 윤리성	쓰기의 생활화								

백한빛 선생님의  
최 마무리특강

작문의 과정	아이디어 생성하기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필요성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고 분석하는 것로부터 작문 과정이 시작된다. 작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자들은 작문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인지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예상독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상위 구조를 이루는 중심 내용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을 읽은 독자가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는 내용이 바로 글의 중심 내용이다. 또한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세부 내용이 풍부하고 다채롭고 구체적일수록 글이 유효해지며 글의 중심 내용이나 주제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중요성	성공적인 작문을 위해서는 작문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결과를 예측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적인 작문을 위해서는 글에 담을 내용을 풍부하게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글에 대한 화제와 지식이 많을수록 글의 양과 질이 우수해진다.					
원리			연상과 자유연상 (총괄성, 풍부성)					
전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작문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고 분석한다.</li> <li>② 작문 과정에 대해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예측한다.</li> <li>③ <b>작문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준비하고 내용 생성을 계획한다.</b></li> <li>④ 글의 제목이나 대략적인 내용을 떠올리고 내용 구조 및 전개를 계획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글의 제목과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삼아 체계적이며 창의적인 사고활동을 전개한다.</li> <li>② 작문 상황 및 작문 계획에 맞게 글의 중심 내용을 조정하고 구체화 한다.</li> <li>③ 작문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활용하여 중심 내용을 뒷받침할 세부 내용을 생성한다.</li> </ol>					
종류와 기준은?	계획하기	구조와 전개계획하기	내용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수사론적 문제 탐색하기</b></li> <li>• 글 전체의 개략적인 구도 작성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략적인 메모 활용</li> <li>• 내용구조도</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창의적 활동</th> <th>체계적인 활동</th> <th></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레인스토밍</li> <li>• 연상방법</li> <li>• 자유롭게 쓰기</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작성 방법</li> <li>• 내용구조도 활용</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록 및 요점나열</li> <li>• 대화전략</li> </ul> </td> </tr> </tbody> </table>	창의적 활동	체계적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레인스토밍</li> <li>• 연상방법</li> <li>• 자유롭게 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작성 방법</li> <li>• 내용구조도 활용</li> </ul>
창의적 활동	체계적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레인스토밍</li> <li>• 연상방법</li> <li>• 자유롭게 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작성 방법</li> <li>• 내용구조도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록 및 요점나열</li> <li>• 대화전략</li> </ul>						
각방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수사론적 문제 탐색하기 : 필자, 독자, 주제, 목적, 매체에 대한 탐색을 통해 필자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짓는 것</b></li> <li>• 개략적인 메모 : 글 전체의 구도를 작성할 때에는 세부 내용에 집착하거나 .....</li> </ul>		<p>브레인스토밍 : 주어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을 전개해 나가되, 완벽한 생각을 이끌어 내려고 하지는 안 된다.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이 적어 놓은 생각을 정교하게 다듬거나 순서에 맞게 조정하는 데에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브레인스토밍은 자유 연상과는 달리 목표 지향적인 사고 활동이므로 브레인스토밍의 과정에서 필자는 자신의 생각이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한다.</p> <p>대화전략 : 세부 내용을 떠올릴 때 실제적인 예상 독자와 협의 하고 대화하는 방법 (독자와 대화), 주제에 대한 필자 ....</p>					
지도상유의점	<p>미숙한 필자들은 앞으로 전개될 작문 과정을 생각해보지 않고 곧바로 집필로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분석된 문제에 비취를 때 작문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인지, 그 결과는 과제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p>		<p><b>미숙한 필자들은 내용이 떨어지면 작문 과정의 진행을 멈추어 버린다. 이때에는 배경지식으로부터 내용을 생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b></p> <p>한편 미숙한 필자들은 흔히 내용을 한 번 마련하면 그것을 고수하면서 글을 완성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므로 작문의 회귀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한 내용과 생성한 내용을 비교, 대조하여 검토하고 상호 수정, 보완을 통해 글의 충실성을 더하고 통일성을 유지하여 글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도록 할 수 있다.</p>					
단계별수정전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작문 계획과 생성한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생성한 내용을 수정, 보완 한다.</li> <li>② 생성한 내용을 검토하여 작문 계획을 조정하고 구체화한다.</li> </ol>					

**A-13-작문** | 서교사는 “모범문의 내용 전개 과정을 모방하여 성찰하는 글을 쓸 수 있다.” 라는 학습 목표로 수업을 실시하였다. 다음을 읽고 수업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십시오 [4점]  
**관련 교육과정** | (30) 생활 속의 체험이나 깨달음을 글로 쓰으로써 삶의 체험을 기록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습관을 기른다.

- 자기표현과 사회성 상호 작용을 위한 작문 -

(30) 생활 속의 체험이나 깨달음을 글로 쓰으로써 삶의 체험을 기록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습관을 기른다.

일상의 삶을 성찰해 보고 여기에서 얻은 깨달음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과 태도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 일상의 삶을 섬세하게 관찰함으로써 의미를 발견하고 여기에서 발견한 의미를 기록해 두고 작품으로 산출하는 습관과 태도를 가지다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해 좀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감상문이나 수필, 회고문 형태의 글을 써 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관조해 보고 긍정적 정서를 기르며 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공동체의 글쓰기 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 평가기준 | 문학의 즐거움 : 새로운 사실을 아는 즐거움, 상상하는 즐거움,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공통〉 745. 자신의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쓴다.	745-1. 수필의 내용적 형식적 특성을 말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수필에서 수필의 내용적 특성을 찾아본다.</li> <li>• 다양한 수필에서 수필의 형식적 특성을 찾아본다.</li> </ul>
	745-2. 자신의 생활 체험에서 수필의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 체험 중에서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기억에 남는 일을 떠올려 본다.</li> <li>• 생활 체험에서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한다.</li> </ul>
	745-3.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수필을 쓸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인 생활 체험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잘 드러나도록 표현한다.</li> <li>• 생활 체험을 공유하지 못한 독자를 고려하여 글을 쓴다.</li> <li>• 친구들의 수필을 읽고 감동이나 즐거움을 공유한다.</li> </ul>
〈화법과작문〉생활 속의 체험이나 깨달음을 글로 쓰으로써 삶의 체험을 기록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습관을 기른다.		일상의 삶을 성찰해 보고, 생활 속의 체험이나 깨달음을 글로 쓸 수 있다 삶의 체험을 기록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이론적 배경** | • 형식주의 작문교육관, 결과중심의 쓰기지도 > 모범적인 글쓰기 • 인지주의 작문교육관, 과정중심의 쓰기지도 • 사회구성주의 작문교육관, 장르중심의 쓰기지도, 대화중심의 쓰기지도

**■ 쓰기 교육의 경향**

전체적으로 볼 때, 쓰기(구성)의 과정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1970년대 에 활발히 전개되었다. 1960년대 중반 이전에 쓰기의 구성주의적 관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이전에는 글 자체를 강조한 형식적 관점이 팽배했다. 형식주의적 관점은 외재주의적(객관주의적) 지식관을



주 의 언어학, 문학에서는 형식주의 이론이 팽배해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을 거쳐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지주의적 관점이 강하게 부각되었다. 물론 이 시기에서도 외재주의적 지식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상당 부분 외재주의적 지식관에 입각 하면서 내재주의적(상대주의적, 또는 구성주의적) 지식관을 수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는 텍스트의 의미를 완전히 고정된 것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변화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필자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여, 필자를 역동적인 의미 구성자로 파악하

였으나 독자는 여전히 의미의 수용자로 본 측면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인지 심리학자들은 필자의 의미 구성 과정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일련의 쓰기 과정 중에서 계획하기(내용 생성과 조직) 과정이나 교정하기 과정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며, 몇몇은 점점(조정)하기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들 인지심리학자들의 연구는 쓰기 행위를 일종의 문제 해결 과정, 의미 구성 과정으로 파악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쓰기 행위 동안에 필자의 머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지 행위를 밝히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쓰기에 대한 인지주의적 관점은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 의해 비판을 받으며 쓰기 현상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 시기에 와서는 기본적으로 내재주의적 지식관에 입각하여 쓰기 현상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철학에서는 사회적 구성주의 철학이 부각되었고 언어학에서는 사회심리 언어학이나 텍스트 언어학, 화용론 등이 주목을 받았으며, 문학에서는 수용 미학, 지식 사회학, 민족학 등이 각광을 받았다. 쓰기 현상을 문화의 한 양상으로 파악하면서 연구 방법으로는 민족지학적 방법이나 자연주의적 방법 등의 자연스런 상황에서 실제로 관찰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텍스트의 의미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파악하며, 필자와 독자 모두를 적극적인 의미 구성자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쓰기 학습을 담화 공동체에 참여하는 행위로 파악하면서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했다. 그래서 교사를 의미 구성원의 일원으로 파악하고 의미 구성의 안내자, 촉진자

로 파악하면서 교사와 학생의 협의를 강조했으며 또한 학생들 간의 협동이나 협의를 강조하게 되었다.

위에서 살핀 인지주의적 관점에서는 쓰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고자 했다면, 사회적 관점에서는 문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적 계층이나 성, 윤리적 배경 등에 따른 집단(또는 개인)간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쓰기 행위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문화와 동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들 쓰기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사람들은 사회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쓰기가 이루어지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즉, 이들은 글을 쓰는 동안에 필자와 독자가 상호작용하면서 어떻게 의미를 생성해 내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이들의 관점은 쓰기 과정의 범주를 확대했으며, 쓰기의 과정이 단순히 필자의 인지적 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한 공동체와 긴밀하게 관련되었다는 점, 그만큼 쓰기에서 상황을 강조했다는 점, 쓰기 현상에서, 독자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 필자의 정의적인 측면을 부각시켰다는 점 등에서 의의가 있다.

**백한빛 선생님의  
최 마무리특강**

위의 흐름을 바탕으로 쓰기 교육의 방식을 양극화시켜 보면, 결과 중심 접근과 과정 중심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결과 중심 접근(product-oriented approach)은 대체로 1960년대 중반 이전에 행해졌던 쓰기 교육의 주된 방식으로, 완성된 글 자체를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의 쓰기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방식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과정 중심 접근이 대두되었다. 과정 중심 접근(process-oriented approach)은 완성된 글 자체 보다는 그 글을 완성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강조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과 중심 접근은 주제를 제시하고 한편의 글을 쓰게 한 다음, 다 쓴 글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는 활동이 주류를 이룬다. 대체로 정확성을 강조하고, 문법이나 수사학적 기법을 강조하는 경향이 짙다. 또한 결과 중심 접근은 모방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모범적인 글을 제시하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이를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룬다. 여기에서 교사는 주로 점검자 또는 평가자의 입장을 취한다. 그만큼 교사는 소극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

여기에 비해 과정 중심 접근은 쓰기 과정, 즉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조직, 기술, 교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강조한다. 과정 중심 접근에서는 쓰기 행위를 일종의 문제 해결 행위로 간주한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에서 학생들 각자가 문제를 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게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쓰기 과정에서의 회귀성을 강조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친구들이나 교사와 협의를 하기도 하고, 협동을 통해 공동 작품을 완성해 가기도 한다. 교사는 결과 중심 접근에서처럼 단순하게 평가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쓰기 과정에 역동적으로 개입하여 그들을 안내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문학의 표현방식 (널리/바로 알리기 - 교술갈래로서의 수필)**

**1. 알리기의 본질**

**깨달음과 읽기의 문학**

이야기하기의 언어 표현 양식 중에는 이야기나 소설과 같이 인물이나 사건을 통하여 문학적 형상을 창조하는 것과는 달리,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알리는 목적의 이야기하기라는 양식을 따로 설정하기도 한다. 전통적인 갈래 이론에서 교술이라고 분류되는 양식으로, 이런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글쓴이의 생각이나 감정을 바르게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을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sup>1)</sup> 그리고 이런 문학 양식에는 신변사를 기록한 문학적 수필은 물론 어른들이 아이에게 들려주는 교훈적인 이야기 등이 포함된다. 이해와 설득을 목표로 하는 이런 이야기 문학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널리, 바로 알리기를 목적으로 하며, 표현의 구체적인 양상도

그 목적에 따라 각각 다르게 선택하게 된다. 즉 섬세한 관찰 능력을 동원하여 현상을 묘사하기도 하며, 어떤 원리의 구체적인 양상을 설명하여 전달하거나, 현상을 분석하여 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또 이런 이야기 문학과는 달리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글쓰기라는 차원에서, 글쓴이의 성찰과 사색의 과정이나 결과를 보여주어, 글을 읽는 독자와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런 문학 양식은 이를 읽는 사람들의 심미적인 감수성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주로 읽는 사람의 인지적이거나 정의적인 사고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신변 잡거나 자연 대상에 대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경수필(輕隨筆, miscellany)과 같은 문학 양식은, 서사적인 이야기나 묘사를 통하여 심미성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정의적인 측면에 보다 중점을 두어 접근하고자 한다. 이에 비하여 글쓴이의 철학적 사색과 성찰을 담은 수상이나 문학 작품에 대한 단편적인 감상이나 비평적 논평을 보이는 중수필(重隨筆, essay)은, 문학 향유자의 인지적인 능력과 관련하여 작품을 이해하고 이에 동감할 수 있어야 한다.

**알리기의 글쓰기 방식**

알리기로서의 이야기 문학은 그 성격에 따라 다른 의도를 가진 양식이므로, 이에 대한 접근 방식 역시 달라야 한다. 또한 이런 이야기 양식은 어느 정도 상대를 염두에 둔 글쓰기로, 일반적인 독자보다는 보다 구체화될 수 있는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글쓴이의 의도를 바르게 파악하고, 이를 짚어내는 것이 이런 글읽기의 방식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문학 양식은 이런 독자들이 문학 작품을 통하여, 자신들의 '깨달음'이나 '읽으로 발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제 널리 알리기와 바로 알리기를 목적으로 하는 이야기 문학의 한 예를 보자.

“ 내가 남쪽으로 어떤 강을 건너는데, 배를 나란히 하고 건너는 사람이 있었다. 두 배의 크기도 같고, 사공의 수도 같으며, 타고 있는 사람과 말의 수도 거의 비슷하였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보니, 그 배는 떠나가기를 나는 듯이 달아나서 벌써 저쪽에 닿았는데, 내가 탄 배는 오히려 머뭇머뭇하여 진전하지 않았다. 그 깨달음을 물으니,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저 배에는 사공에게 술을 먹여서 사공이 힘을 다하여 저왔기 때 문이다.”하였다. 나는 부끄러운 빛이 없을 수 없었다. 따라서 탄식하기를, “이 조그마한 갈대 잎과 같은 배가 가는 데에도 오히려 너물이 있고 없는데 따라 빠르고 느리며 앞서

고 뒤서는 것이거늘, 하물며 벼슬길에서 경쟁하는 마당에 있어서 내 손에 돈이 없었으니, 오늘날까지 하급 관리 하나도 얻지 못한 것이 당연하구나.”하였다. 기록하여 두었다가 다른 날에 참고로 삼으려 한다.“

— 이규보, 「주뢰설(舟賸說)」

이 이야기는 너물주기가 만연되어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이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런 현실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의 지표로 세우고, 이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자 한다. 특히 “기록하여 두었다가 다른 날에 참고로 삼으려 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인식과 비판을 넘어서, 이런 현실을 경계하고 바로잡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편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을 통하여, 글쓴이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데 지침이 될 수 있는 교훈을 찾고 있는, 사실 - 상상 - 깨달음이라는 전통적인 글쓰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알리기의 이해와 표현**

**알리기의 표현 전략**

위의 이야기를 표현 전략의 차원에서 보면, 후반부는 앞부분에서 말한 일들이 주는 의미를 되새기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세상의 일들을 '나'라는 주체의 일과 관련시키고 이를 통하여 문학적 감동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리고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대리 성취나 자기 동일시, 또는 세상에 눈을 뜨게 되는 읽의 기쁨이다. 즉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 의미 부여 과정으로, 주체로서의 '나'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세상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이를 우리들의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이처럼 널리 알리기와 바로 알리기로서의 이야기 문학은 다양한 원래 알리기의 의도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표현 전략을 구사하여야 하며, 읽기의 과정에서도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이것이 곧 널리, 바로 알리기로서의 이야기 문학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문학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학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정의적인 차원에서의 동감이나 인지적 차원에서의 깨달음에 얻을 수 있다. 문학 작품을 통해 미적이나 지적 쾌감을 찾아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보는 태도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바로/널리 알리기로서의 교술적인 글이 보여주는 표현 전략은 오늘날의 글쓰기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즉 대상 자체를 분석하고, 그 관계를 검토한 다음에 의미를 발견하는 옛사람들의 사

고 틀이나 글쓰기 방식은, 오늘날에도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해결하는 언어 활동의 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구체적이거나 비유적인 이야기를 먼저 제시하고, 여기서 의미를 도출하는 설득적인 이야기나 글쓰기는 이런 표현 전략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해와 표현 활동의 통합**

또한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 과정을 단순한 수용의 과정이 아니라 상상력을 동원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표현 행위라는 점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은 최근 문학교육에서 읽기/쓰기의 통합이라는 시도가 도입되고 있는 관점을 받아들이면, 문학의 창작 과정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의 수용 과정에서의 표현 행위도 또다른 창조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문학에서 표현 활동이 창작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감상문 쓰기와 같은 이해 활동으로도 그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처럼 읽기/쓰기나 이해/표현의 통합이라는 시각은, 수용의 측면만을 주목하였던 기존의 '읽기' 개념을 확장하려는 최근의 문학교육 논의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로, 이해와 표현이 문학 작품에 대한 독자의 주제적인 의미 부여 방식이라는 관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만 창작 과정에서의 수용 과정에서의 표현 행위는 표현의 주체와 표현의 작용 대상이나 표현의 결과 즉 그 생산물이 다를 뿐이며, 그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

합격생이 적극 추천하는 명강의, 백한빛 선생님의

**16년기출해설무료특강**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들어가 할 필수강의!

12월 21일(월) 14:00

에듀한빛 홈페이지 공지란에 댓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WWW.EDUHANBIT.COM

**【한문학 양식, 설(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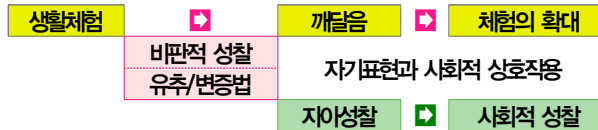
설(說)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치에 따라 사물을 해석하고, 사비를 밝히면서 자기 의견을 설명하는 형식의 한문체이다. 둘째, 비유(比喩)나 우의적(寓意的) 표현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셋째, 국문 학상의 갈래로는 '수필(隨筆)'에 가장 가깝다.

- (1) 뜻: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건의 이치를 밝히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글
- (2) 특징:
  - ① 이치에 따라 사물을 해석하고 자기 의견을 설명하는 한문 문학의 한 갈래
  - ② 비유나 우의적인 방법 많이 사용
  - ③ 국문학상의 갈래로는 교훈적인 수필에 가까움
  - ④ 독자를 설득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많음
  - ⑤ 일반적으로 '사실(예화)+의견(주제)'의 2단 구성을 취함
  - ⑥ 우리 나라 최초의 설은 아규보의 경설, 슬견설 등이다.
- (3) 주로 2단 구성이나 예화가 결들이면 3단구성이 되기도 한다
  - ① 사실 + 의견 (의미 부여 - 깨달음)
  - ② 개인적인 체험(주관) + 인간 보편적인 삶의 원리(객관)
  - ③ 근거(논거) + 주장(논지)추론의 방법은 주로 유추, 변증법

형식	내용 단락 (내용 전개방식)		
1단락	사실	개인적체험	체험
□	상상력 (사고력)		
2단락	의견	보편적원리	깨달음(개인)
3단락	부연	체험의확대	깨달음(사회)

**수필은 자기 성찰이요, 사회적 성찰의 결과물이다**

설양식은 일상의 체험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삶의 보편적 원리를 비판적 성찰의 과정을 통해 깨닫고 이러한 체험을 사회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한문학의 양식이다.



**아규보의 작품 중 더 읽을 작품**

- **‘슬견설(虱犬說)’** : 개(犬)를 죽이는 것은 참혹하며 이(虱)를 죽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손에게 작자는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죽음을 싫어하는 마찬가지로 선입견(先入見)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올바르게 보도록 하자는 교훈을 주고 있다
- **‘주뢰설(舟螺說) 뱃사공과 뇌물 이야기’** : 뇌물의 인습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작자 아규보는 사공들이 술과 같은 작은 뇌물 수수 여부에 따라서 일을 잘 하고 못 하고자 결정 내는 것을 보고 이것이 벼슬잡이에서도 그러하다고 보아 살력이 있어도 대접받지 못하는 당시의 세태를 개탄하며 이 글을 후세의 경계로 삼을 것을 말하고 있다.
- **‘몽설(夢說) 꿈 이야기’** : 아규보는 자신이 높은 다락 위에 앉아 있고, 그 밑은 바다인 꿈을 6, 7년간 되풀이해서 꾸었다. 친구에게 꿈 내용을 말했다니 길몽이라 풀이해 주므로 은근히 기대하였다. 그런데 사소한 일로 위도에 귀양을 갔는데, 자신의 거처에 바로 꿈 속의 다락이 그대로 있는 것이었다. 그는 뒤에 풀려 벼슬이 높이 올랐다. 사람의 일이란 이미 하늘이 정해 놓은 것이라는 운명론적 사고를 보여 주고 있다.

**‘경설’에서 ‘거울’의 의미 ( 중요 : 두산 동아 교사용 지도서 참고\*)**

‘경설’이란 수필은 작자의 주관적 처세관을 밝힌 것이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객관화된 하나의 이야기 구조 속에 용해하여 일종의 우화적 기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작품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비유적 의미와 상징성을 띠고 있어 그 해석이 어떤 사실의 기술처럼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고 상당한 애매성을 수반한다.

이 수필에서 거울은 ‘흐린 거울’과 ‘맑은 거울’로 구분하여 제시되는데, 그것은 각각 거울을 이용하는 사람의 ‘못생긴 거울’과 ‘잘생긴 얼굴’에 대응되어 있다. 그리고 작중 화자(작가 자신)는 ‘못생긴 얼굴’의 주인공으로 ‘흐린 거울’을 애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거울은 작자가 만려로 삼고자 하는 친구 될 수도 있고 작자가 나아가고자 하는 세계, 또는 작자를 인정해 주는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너무 많고 결백해서 상대방의 흡이나 결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 관계에 대한 비판도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전체 이야기의 맥락과 상관 없이 거울은 인간의 본성과 영혼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사람의 본성은 맑고 깨끗하지만 세상의 만지와 타끌이 되어 그 본성이 흐려진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백한빛 선생님의  
한문특강

<b>채점 요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작문 교육관과 쓰기 지도는 구별해야 한다</b> &gt; 형식주의 작문 교육관에 기초한 '결과 중심의 쓰기 지도' (1점)</li> <li>• 문항의 학습목표는 '모범문의 내용 전개 과정을 모방하여 성찰하는 글을 쓸 수 있다'</li> <li>• 학습목표를 고려하여 (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구성과 내용(성찰)의 측면에서 1가지씩 제시하고 그 개선 방안을 각각 서술할 것</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color: #000080;">구성 방식* (3단구성)</th> <th colspan="2" style="color: #000080;">모범적인 글 ( 모범문은 <b>한문항의 '설 양식'에 유의*</b>)</th> <th colspan="2" style="color: #000080;">학생의 글</th> </tr> <tr> <th style="color: #000080;">단락의 내용</th> <th style="color: #000080;">내용전개방식* (유추)</th> <th colspan="2" style="color: #000080;">단락의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단락</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활 체험</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유추 (비유)</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생활 체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단락</td> <td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적 성찰</td> <td style="text-align: center;">• 개인적 깨달음(개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단락</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회적 성찰</td> <td style="text-align: center;">• 깨달음의 확대(사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구성 방식* (3단구성)	모범적인 글 ( 모범문은 <b>한문항의 '설 양식'에 유의*</b> )		학생의 글		단락의 내용	내용전개방식* (유추)	단락의 내용		1단락	생활 체험	유추 (비유)	생활 체험		2단락	개인적 성찰	• 개인적 깨달음(개인)	?	3단락	사회적 성찰	• 깨달음의 확대(사회)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color: #000080;">학생의 글</th> <th style="color: #000080;">내용전개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생활 체험</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학생의 글		내용전개방식	생활 체험	
구성 방식* (3단구성)	모범적인 글 ( 모범문은 <b>한문항의 '설 양식'에 유의*</b> )		학생의 글																										
	단락의 내용	내용전개방식* (유추)	단락의 내용																										
1단락	생활 체험	유추 (비유)	생활 체험																										
2단락	개인적 성찰		• 개인적 깨달음(개인)	?																									
3단락	사회적 성찰		• 깨달음의 확대(사회)	?																									
학생의 글		내용전개방식																											
생활 체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전개 : 생활 체험으로부터 삶의 보편적 원리에의 깨달음을 <b>유추에 의해 전개</b>하고 있다.</li> <li>• 생활 체험으로부터 얻은 개인적인 깨달음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 적용하여 독자에게 깨달음과 감동을 주고 있다</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ackground-color: #ffff00; padding: 2px;">개선방안</div> </td> <td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ackground-color: #ffff00; padding: 2px;">1) 구성 문제점</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fff00; padding: 2px;">2) 내용 문제점</div> </td> <td style="text-align: center;">                     통일성, 유추 개인적 깨달음                 </td> </tr> </table> <p style="color: #000080;">* 유추 : 서로 다른 두 대상 사이의 개념이나 상형의 공통점이나 유사성을 바탕으로 글을 전개</p>	<div style="background-color: #ffff00; padding: 2px;">개선방안</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fff00; padding: 2px;">1) 구성 문제점</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fff00; padding: 2px;">2) 내용 문제점</div>	통일성, 유추 개인적 깨달음																								
<div style="background-color: #ffff00; padding: 2px;">개선방안</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fff00; padding: 2px;">1) 구성 문제점</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fff00; padding: 2px;">2) 내용 문제점</div>	통일성, 유추 개인적 깨달음																											
<p>■ 허용 채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문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식주의 작문 이론, 결과 중심의 접근, 결과 중심의 접근 방법, 결과 중심의 쓰기 지도</li> <li>• 구성면에서의 개선 방안 : 유추, 통일성 ( 내용 조직의 원리로 글의 전개방식과는 거리가 있지만 &lt;작성방법&gt;에서 '구성면'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허용 채점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다)</li> <li>• 내용면에서의 개선 방안 : 개인적 성찰, 개인적 깨달음, 보편적 원리, 보편성 / 사회적 성찰, 사회적 확대, 체험의 확대, 공감의 확대</li> </ul>																													
<b>답안 작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결과 중심의 쓰기 (지도)</b></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color: #000080;">학생의 글</th> <th style="color: #000080;">문제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 구성면</td> <td colspan="2">(2) 단락이 경우 주제로부터 벗어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범적인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 (1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 내용면</td> <td colspan="2">(2), (3) 단락의 경우 모범적인 글과는 달리 다이어트의 실패로부터 비롯된 개인적인 깨달음이나 사회적 성찰이 나타나 있지 않다 (1점)</td> </tr> </tbody> </table>	학생의 글		문제점	(1) 구성면	(2) 단락이 경우 주제로부터 벗어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범적인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 (1점)		(2) 내용면	(2), (3) 단락의 경우 모범적인 글과는 달리 다이어트의 실패로부터 비롯된 개인적인 깨달음이나 사회적 성찰이 나타나 있지 않다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학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b></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color: #000080;">교사</th> <th style="color: #000080;">개선방안 (지도방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글을 쓸 때 3단 구성에 맞도록 통일성 있게 내용을 조직하고 '유추'에 의해 내용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점)</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생활 체험을 통해 자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개인적 깨달음(성찰)을 사회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점)</td> <td></td> </tr> </tbody> </table>	교사		개선방안 (지도방안)	□	글을 쓸 때 3단 구성에 맞도록 통일성 있게 내용을 조직하고 '유추'에 의해 내용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점)		□	생활 체험을 통해 자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개인적 깨달음(성찰)을 사회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점)										
학생의 글		문제점																											
(1) 구성면	(2) 단락이 경우 주제로부터 벗어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범적인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 (1점)																												
(2) 내용면	(2), (3) 단락의 경우 모범적인 글과는 달리 다이어트의 실패로부터 비롯된 개인적인 깨달음이나 사회적 성찰이 나타나 있지 않다 (1점)																												
교사		개선방안 (지도방안)																											
□	글을 쓸 때 3단 구성에 맞도록 통일성 있게 내용을 조직하고 '유추'에 의해 내용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점)																												
□	생활 체험을 통해 자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개인적 깨달음(성찰)을 사회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점)																												
<b>참고 자료</b>	논리적 구성 ( 연역, 변증, 귀납법은 추론의 방법) 1) 단계식    2) 인과식    3) 문제해결식    4) 열서식    5) 점층식 ...																												
	동태적 1) 서사    2) 인과    3) 과정 정태적 1) 정의/지정확인    2) 분류와 분석    3) 비교와 대조    4) 비교와 유추    5) 예시, 설명과 묘사...																												
미숙한 필자들은 내용 생성을 잘 수행하더라도 생성된 내용을 조직하고 전개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 경우 다른 글의 내용조직과 전개를 참조하여 활용하면 독자들의 내용의 흐름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어 전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 생각을 조직하고 전개한 것과 비슷한 전략을 내용 조직에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좋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color: #000080;">일반적인 조직, 전개 방법</th> <th style="color: #000080;">전통적인 조직, 전개 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제시 및 예시</li> <li>• 원인과 결과</li> <li>• 단계적 순서 모형</li> </ul>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제기 및 문제 해결</li> <li>• 비교 및 대조</li> </ul> </td> </tr> </tbody> </table>			일반적인 조직, 전개 방법	전통적인 조직, 전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제시 및 예시</li> <li>• 원인과 결과</li> <li>• 단계적 순서 모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제기 및 문제 해결</li> <li>• 비교 및 대조</li> </ul>																							
일반적인 조직, 전개 방법	전통적인 조직, 전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제시 및 예시</li> <li>• 원인과 결과</li> <li>• 단계적 순서 모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제기 및 문제 해결</li> <li>• 비교 및 대조</li> </ul>																												
① 내용의 조직과 전개를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내용을 조정한다.																													

### 전개 방식 파악하기

#### '전개 방식'이란 무엇인가?

글의 전개 방식이란 글 내용이 선정, 배열된 방식이다. 글의 전개 방식을 아는 것은 필자가 어떠한 생각에 입각하여 글 내용을 선정, 배열하였는가를 이해하는 일이다. 특정한 소재를 왜 선정하였으며, 왜 그러한 순서로 배열하였는가를 이해하는 것인데, 이것은 글의 일관성과 통일성, 완결성 등을 아는 것이며 나아가 평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글을 깊이 이해하려면 그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뿐만 아니라, 글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 되어 그런 중심 내용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알 필요가 있고, 글의 전개 방식의 파악은 이러한 의미에서 가치가 있다.

#### '전개 방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글의 전개 방식은 문장과 문장의 연결에서부터 글 한 편의 전체 구성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 범주가 다양하고, 적용 범주에 따른 전개 방식이 모든 범주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있고 특정한 범주에만 적용되는 것도 있다.

미시적이면서 또한 거시적으로 모든 범주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전개 방식은 대표적으로 '정의, 지칭, 분류, 분석, 비교, 대조, 예시, 인용' 등의 정태적인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과, '과정, 인과, 문제해결' 등 동태적인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문장과 문장을 선정·배열하여 문단을 구성하는 방식이며, 문단이나 내용 단락을 선정·배열하여 글 전체를 구성할 수도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개 유형이다.

또한, 역시 문장과 문장에서부터 글 전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적용되는 전개의 개념으로 '시간적 구성, 공간적 구성, 논리적 구성'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내용을 시적 개념을 가진 것으로 일관되게 선정하고, 시간의 순서가 정리될 수 있도록 통일성 있게 배열하는 방식으로, 내용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는 보편적인 전개 방식이다.

중심 내용을 글의 어디에 위치시키는가 하는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구성' 등도 전개 방식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독자에게 중요한 말을 먼저하고 이를 설명하는 두괄식과, 관련 용을 말한 후 정리하는 미괄식과, 글의 앞과 뒤 등에서 밝히는 양괄식 등의 구성도 문단과 글 전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개 방식이다.

이와 달리, 문단 단위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지만 글 단위에서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는 전개 방식이 있다. 삼단 구성이나 사단 구성, 오단 구성 등의 개념이 그것인데, '어는 말(서론), 펴는 말(본론), 닫는 말(결론)', '기, 승, 전, 결',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등으로 나타낸다. 이런 전개 방식은 한 편의 글을 가장 거시적으로 볼 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글의 가장 깊은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글의 장르에 따라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전개 방식도 있다. 논설문에서는 '주장(결과), 근거(원인, 이유)'나 '문제, 해결(대안)', '문제(결과), 원인, 해결', '주장, 하위 주장' 등의 전개 방식이 유형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야기같은 필연적이거나 개인적인 인과 관계로 연결되는 사건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서사적 구성이 전형적으로 나타낸다. 설명문은 앞서 말한 기본전개 방식이 가장 충실히 적용된다. 전통적으로 논증, 서사, 설명 등으로 분류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 읽기에서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글의 전개 방식은 실제 글을 읽을 때 중심 내용이나 글 구조에 우선해서 인식되는 요소이다. 내용 하나하나가 어떻게 연결되고 다음으로 나아가는지를 알게 되어서, 글 내용의 전반적인 연결 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내용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글의 흐름을 읽으로써 글의 종류나 성격을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글 이해의 방법을 조절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글의 전개 방식을 아는 것은 필자가 만들어 놓은 글 구성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소재를 단순히 나열하거나 기계적인 논리로 배열하기보다, 독자가 흥미를 느끼게 하거나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재를 선정하고 배열하는데, 글의 전개 방식을 인식하여 읽음으로써, 필자가 독자에게 어떻게 다가오려 하는지를 알면서 읽을 수 있다. 여기에서 나아가면 필자의 의도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 더욱 깊이 있는 독해를 할 수 있다.

#### 능숙한 독자는 '전개 방식'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능숙한 독자는 첫째, 글의 종류나 글이 소통되는 상황에 민감하다. 글의 종류는 글의 전개 방식을 암시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글이 실린 매체라든지 글이 소통되는 장면 등 상황도 글의 종류를 판단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이므로 상황에 따라 글의 종류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글의 전개 방식을 짐작할 수 있다.

글의 전개 방식이 명확해지는 것은 글의 내용 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표지 등 글의 표현과, 글 내용 간의 관계를 추리하는 독자의 사고에 이르러서이다. 따라서 글의 표현을 잘 살펴 연결 관계를 제시하거나 전개 방향을 암시하는 표지어를 비롯한 여러 단서를 발견하여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배경 지식 등을 활용하며 내용간의 연결 관계를 추리하고 확인하며 적극적으로 사고하며 글을 읽는다.

#### 전개 방식을 지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한 편의 글에는 다양한 전개 방식이 종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세세하고 다양한 전개 방식을 모두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인식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글에서 가장 지배적인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글의 종류나 성격을 규정짓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또, 하나의 전개 방식이 장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가능할 수 있다. 가령 '인과'의 기본 전개 방식은 '바람이 일자 촛불이 꺼졌다. 촛불은 바람에 약하기 때문이다.'에서는 설명의 전개 방식이 되지만, '심청의 어머니는 청이를 낳고 7일만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심봉사가 동냥짓을 먹으며 청이를 키웠다.'에서는 서사의 전개 방식이 되며, '일화용품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일화용품은 자원의 소비와 환경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이다.'에서는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지는 논증의 전개 방식이 된다. 따라서 동일한 글에 몇 개의 전개 방식이 겹쳐서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글의 전개 구조를 일차원적으로 이해하기보다 다차원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 문단의 전개 방식

문단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개 방식은, 정태적 또는 동태적 관계로 정리되는 '정의, 지칭, 분류, 분석, 비교, 대조, 예시, 인용' 및 '과정과 인과' 등이다. 그리고 내용의 전개가 '시간적 구성, 공간적 구성, 논리적 구성' 등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로써 내용의 통일성과 일관성, 완결성 등을 판단할 수 있다. 더불어 중심 내용의 위치와 관련하여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등의 구성이 나타날 수 있고, 그 효과가 어떠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 글 전체의 전개 방식

문단에서와 마찬가지로, 글 전체에서도 기본적인 전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문단간의 관계에서 정태적 또는 동태적 관계로 정리되는 '정의, 지칭, 분류, 분석, 비교, 대조, 예시, 인용' 및 '과정과 인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내용의 전개가 '시간적 구성, 공간적 구성, 논리적 구성'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써 내용의 통일성과 일관성, 완결성 등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문단과 마찬가지로 중심 내용의 위치와 관련하여 '두괄식

배아리 선생님의  
한 하루리특강

미괄식, 양괄식 등의 구성이 나타날 수 있고, 그 효과가 어떠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문단과 달리, 문단 단위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지만 글 단위에서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는 전개 방식이 있다. 우선, 삼단 구성이나 사단 구성, 오단 구성 등 글 내용을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 전개 방식을 나눌 수 있고, 이로써 글의 성격이나 장르를 판단할 수 있다. 물론 매체나 상황을 통해 장르를 알 경우, 장르의 속성에 따라 더욱 구체적인 내용의 전개 방식을 알 수도 있다.

**글 구조 파악하기**

**‘글 구조’란 무엇인가?**

글에는 그것이 한 편의 완성된 소통 단위임을 느끼게 하는 어떠한 특성이 있다. 낙서편의 낙서 모음과 같은 여러 문장의 집합체와 달리, 하나의 일관된 소통 의도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는 글은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이런 글은 기본적으로 글을 이루는 모든 문장의 의미가 그물망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한 편의 글은 하나의 의미망이 되는 것이다. 특히 ‘글답다고 느껴지는 대개의 글은 그 의미망에서 체계적인 질서를 느낄 수 있다. 글의 의미가 일관되고 체계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글이 갖고 있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의미를 글 구조라고 한다.

**‘글 구조’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글이 되기 위해서는 글을 구성하는 모든 문장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그 연결의 체계가 완결되어야 한다. 각각의 내용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하나의 일관된 의미를 갖는 한 덩어리의 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글의 내용이 연관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글의 의미가 하나의 중심점을 갖고 관련 내용이 위계적으로 차례로 연결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글의 의미가 지향성을 갖고서 마치 사슬고리처럼 인과 관계를 가지면서 연결되는 방식이다.

전자의 경우, 하나의 중심 내용에 여러 개의 세부내용이 연결되는데, 마치 ‘과일, 배, 사과, 감, 귤이라는 화제가 나왔다면, ‘과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중심 내용이 중심점이 되어 여러 세부 내용들을 포괄하는 의미 구조가 된다. 이런 구조를 가진 글을 설명적인 글(expository text)이라 하는데, 설명문(explanation)이나 논설문(arguement) 등 논리적인 전개로 이루어지는 글이 대체로 이에 해당한다.

설명적인 글의 위계적인 구조는 상위의 중심 내용과 하위의 세부 내용이 계층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계층은 내용간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데, 상위의 내용과 하위의 내용을 결정짓는 관계는 기술 관계(핵심-상술, description)로서, 포괄성을 기준으로 핵심 내용이 결정된다. 등위의 내용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관계는 논자마다 다양하지만, 나열 관계(수집, 집합; enumeration, collection), 계기 관계(연속, 계열 series), 대응 관계(비교/대조; comparative/contrast), 인과 관계(causation), 문해 관계(문제-해결, 반응; problem-solving, response)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후자와 같이 화제나 중심 내용이 계속 바뀌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더 의미 있는 것을 도입하기 위해 내용이 전개되어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글은 연쇄적인 의미구조가 된다. 이런 구조를 가진 글로 대표적으로 서사적인 글(narrative text)이 있는데, 이야기글을 뜻한다. 그러나 이 외에도 설명문이나 논설문의 ‘서론’ 같은 곳에서 화제나 논제를 도입할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구조를 설정하는 범위의 크기에 따라서 구조를 나눌 수 있다. 미사구조, 거사구조, 초구조가 그것인데, 미사구조는 두 개의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아주 작은 구조이고, 거사구조는 여러 개의 문장 내지 여러 개의 문단 등으로 만들어지는 구조이며, 초구조는 여러 개의 거사 구조를 모았을 때 발견되는 공통성으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주로 글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글 구조를 분석할 때, 미사구조와 거사구조를 분석하는데, 미사구조는 간명하므로 대개 생략하고 문단이나 글 전체의 의미를 볼 수 있는 거사구조를 다룬다. 초구조는 장르 개념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여러 편의 글의 거사구조를 비교하였을 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구조 특성과 같은 것으로서, ‘근거주장의 논증 구조, 이야기 문법 등 장르를 형성하는 구조의 개념이다.

**‘글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글 내용을 체계적으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중심 내용이 중요한 내용에만 초점을 두고, 전개 방식이 흐름의 성격에 초점을 둔다면, 글 구조는 중심 내용만이 아니라 세부내용까지도 포함하며, 전개 방식에서 나타난 연결 관계 등을 모두 포함하여 글의 의미를 완결되게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글의 전반적인 의미를 한 번에 완결되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글 구조’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일단 글 구조의 유형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글을 읽을 때 글 구조의 유형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며, 어떤 구조 유형인지를 파악한다. 그리고 구조를 드러내는 표지어를 활용한다. 표지어는 접속부사나 연결어미 등의 연결어미가 아니라, 글의 구조를 시사해 주는 요약어나 제시어, 기타 관계를 드러내는 개념 단어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이들 언어 단서를 활용한다. 그 외 글이 실린 매체를 통해 글의 장르를 짐작하고 장르에 따른 글의 구조를 예측하며 확인한다.

**‘글 구조’에 대해 더 알면 좋은 것은 무엇일까?**

글의 구조를 그림이나 표와 같은 도식으로 표현될 때, 그 특징을 쉽게 알 수 있다. 수형도나 벤다이어그램, 글 전개도(flow chart), 의미 지도(mind mapping) 등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에 적합한 틀을 만들면 글의 구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역사나 글 구조 또한 한 가지만이 아니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

**문단의 구조 (1)**

문단에는 문장과 문장 간에 미사구조가 나타나고, 미사구조들으로써 거사구조가 구성된다. 대부분의 설명적인 글에서 나타나는 위계적인 구조는 하나의 거사 명제(중심 내용)와 여러 개의 하위 명제(세부내용)가 위계적으로 배열되어 구성된다.

**문단의 구조 (2)**

이야기 글이 아닌 설명적인 글에서도 간혹 연쇄적인 구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화제의 도입이나 글의 마무리 부분에서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본문 중에서 화제가 전환되며 내용이 바뀌는 것도 있다. 이런 경우 연쇄의 고리 중 가장 비중 있는 것에 중심 내용이 있는데, 주로 뒷부분의 내용이 될 때가 많다.

**\* 참고 자료**

글 구조란 글을 구성하는 명제 또는 문장들이 체계적으로 연결된 망(network)을 뜻한다. 이 글 구조는 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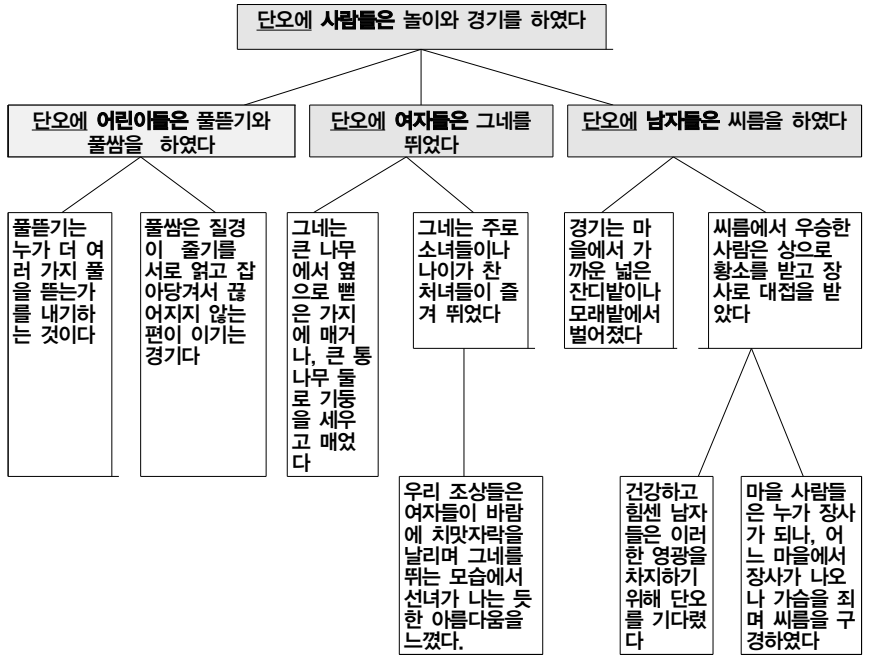
의미를 드러내는 기본 골격 또는 개요가 된다. 글 구조를 '텍스트 구조' 또는 '텍스트 의미 구조'라는 다른 말로 번역하기도 한다.

글은 외형적으로는 문장이 나열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내적 의미로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각 문장 또는 명제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조직을 이루므로써 내용이 응집되는 양상을 띤다. 모든 문장 또는 명제가 서로 연결되어 땅을 이루며, 이 땅은 체계적인 구조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글의 구조'라고 한다.

단오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놀이와 경기를 하며 이 날을 즐겼다. 어린아들은 누가 여러 가지 풀을 더 많이 뜯는가 내기를 하기도 하고, 풀썩을 하기도 하였다. 풀썩은 두 어린이가 질경이 줄기를 서로 얽고 잡아당겨서 끊어지지 않는 편이 이기는 경기다.

여자들은 그네를 뛰었다. 그네는 큰 나무에서 옆으로 뻗은 가지에 매거나, 큰 통나무 둘로 기둥을 세우고 매었다. 그네는 주로 소녀들이나 나이가 찬 처녀들이 즐겨 뛰었다. 우리 조상들은 여자들이 바람에 치맛자락을 날리며 그네를 뛰는 모습에서 선녀가 나는 듯한 아름다움을 느꼈다.

남자들은 씨름을 하였다. 이 경기는 마을에서 가까운 넓은 잔디밭이나 모래밭에서 벌어졌다. 씨름에서 우수한 사람은 상으로 황소를 받고 장사로 대접을 받았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힘센 남자들은 이러한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단오를 기다렸다. 씨름 경기가 벌어지면, 마을 사람들은 누가 장사가 되나, 어느 마을에서 장사가 나오나 가슴을 죄며 씨름을 구경하였다.



글 구조에 대한 연구는 러시아의 민담학자 프로프(Propp)에게서 그 시작을 볼 수 있고, 이후 사회언어학과 심리언어학에서의 연구가 더해져 이야기 문법(story grammar)으로 발전하며, 오늘날 이야기 구조(story structure)에 대한 논의의 형성을 해왔다. 또한 언어학에서 반 디(van Dijk) 등이 생성의미론에 기대어 텍스트의 생성을 설명함으로써 위계적인 체계의 글 구조를 기술하였다. 이로써 이야기 글(narrative text)의 구조뿐만 아니라 설명적인 글(expository text)의 구조 이론을 포함하는 텍스트 문법 이론이 정립되었다.

반 디의 텍스트 문법 이론에 따르면, 글 구조는 그 속성에 따라 미시구조, 거시구조, 초구조의 세 가지의 하위 범주로 나뉜다. 미시구조는 일차적 연결로서, 어휘소간, 문장간 또는 명제간의 연결로 이루어지는 가장 작은 지엽적인 구조이다.

거시 구조는 여러 미시구조를 아우르며 글의 의미적 중심성(응집성)을 만들어 이루어진, 문단이나 글 전체에 대응하는 글 구조이다. 예컨대, 둘 이상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형식 문단의 연결망이나 둘 이상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내용 단락의 연결망, 둘 이상의 내용 단락으로 이루어진 글 전체의 연결망 등을 가리킨다. 형식 문단, 내용단락, 글 전체는 물리적 크기는 다르지만 글의 의미적 중심성을 구성하는 원리는 같으므로, 모두 거시구조에 해당한다. 특정한 글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글 구조를 분석한다'고 할 때, 글의 의미를 드러내는 이 '글 구조'가 거시구조이다.

미시구조, 거시구조, 초구조의 세 가지 글 구조 개념을 제시했던 반 디는 거시구조의 중심 내용인 거시명제(위의 예시문에서 음영 네모 칸에 들어있는 문장들)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거시규칙(macro-rule)이라 하는 이 방법은 '일반화, 삭제, 통합, 구성'의 네 가지이다. 일반화 규칙은 구체적인 개념이나 명제를 그것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바꾸는 것이고, 삭제 규칙은 구체적인 정보, 또는 반복되는 정보, 그리고 부적절한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며, 통합 규칙은 중심 내용이 명시적으로 주어졌을 때 그 명제를 선택하라는 것으로서, 이때의 판단 기준은 정상성(normality)이다. 그리고 구성 규칙은 중심 내용이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구성하라(만들어 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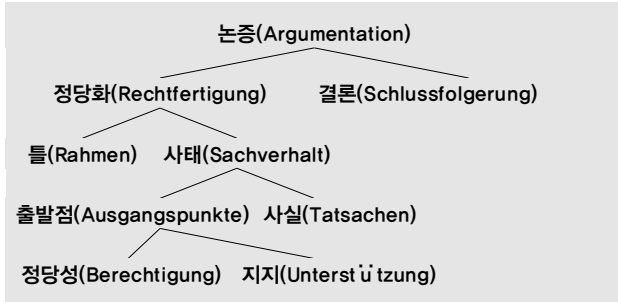
글의 거시구조를 분석하는 일은 글을 구성하는 문장 또는 명제들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고, 글의 결속성과 중심 내용을 판단하는 작업이며, 글의 거시구조는 글의 의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드러내는 한 방법이다. 독서 지도에서는 이런 거시구조의 특징을 활용하여 독해를 돕는다. 특히 거시구조를 의미구조도나 의미망(mind-map), 의미흐름도(flowchart) 등의 시각적 형태로 드러내어 다룬다.

초구조(super-structure)는 같은 유형의 글에서 나타나는 거시구조의 공통된 특성인데, '초시구조', '상위 구조'로도 번역한다. 텍스트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전형적인 구조로서, 특정 장르에 대한 관습화된 인식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설명문, 논설문, 이야기 등의 특정 장르를 떠올릴 때 연상되는 의미의 틀을 말한다. 거시구조가 특정 글의 구체적인 의미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초구조는 특정 장르와 함께 연상되는 추상적인 의미 형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반 디는 논증과 이야기의 초구조를 아래와 같이 예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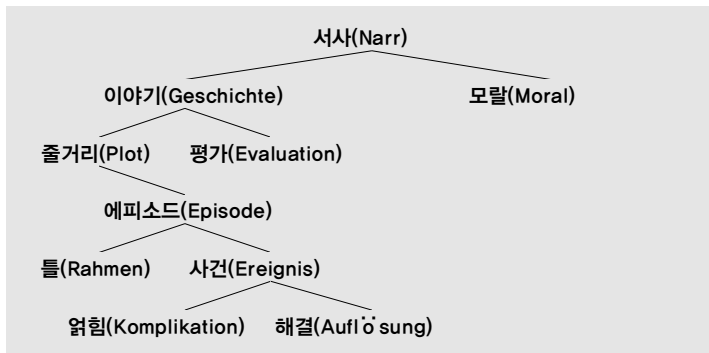
### 백한빛 선생님의 최 마무리특강

(일상적인 논증의 초구조)

1) 김현 편, 『장르의 이론』, 문학과 지성사, 1987.



〈서사의 초구조〉



초구조는 일종의 장르에 대한 의식이기 때문에, 글의 전체적 구조를 인식할 수 있게 하고, 글의 각 부분의 배열도 규정해 준다. 따라서 글을 쓸 때의 생산 도식(스키마, schema)이자 읽을 때의 이해 도식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쓰는 글이라도, 어떤 유형의 글을 쓸 것인가에 따라 서로 다른 초구조를 구성한다. 또한 동일한 글을 '기록문'이라고 말해주고 읽힐 때와, '이야기(소설)'이라고 말해주고 읽힐 때 이해의 결과가 달라지는데, 서로 다른 초구조를 적용하여 글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 김봉순, 국어교육과 텍스트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pp. 29-71, 한국어문교육연구소, 국어과교수학습연구소 편, 독서교육사전, 2006, pp.33-35 참조

참고문헌

김봉순, 텍스트 의미 구조의 표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이정화, 읽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2001  
 한철우, 김명순, 과정중심 독서지도, 교학사

조동일, 『한국 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E. Staiger, 이유영 오한일 역, 『시학의 근본 개념』, 삼중당, 1978.

2) 김대행, 「옛날의 글쓰기와 사건의 틀」,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 출판부, 1995, pp. 262-287

**B-03-작문** (가)는 김교사가 작성한 교단 일기이고 (나)는 유교사, (다)는 최교사가 사용했던 쓰기 평가도구이다. 세 교사가 선택한 쓰기 평가 방법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관련 교육과정**

- 나. 평가 운용
- (1) 화법과 작문 의 주요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정보 전달을 위한 화법과 작문' 은 설명 내용의 정확성과 풍부성, 내용 전개의 명확성과 이해 용이성, 표현의 정확성과 효과성 등을 포함한다.
- (나) '설득을 위한 화법과 작문' 은 관점의 명료성, 논거의 타당성과 풍부성, 설득력 있는 표현 전략, 논지 전개의 체계성 등을 포함한다.
- (다)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화법과 작문' 은 담화와 글의 유형에 따른 내용과 형식의 적합성, 청자나 독자에 대한 배려, 진술성, 표현의 구체성과 참신성, 생활 경험을 즐겨 쓰는 태도 등을 포함한다.
- (2) 화법과 작문에 대한 지식, 기능(전략), 태도를 평가할 때는 각각 적합한 평가 방법을 선택한다.
- (가) 선택형, 단답형과 같은 평가 방법은 주로 지식의 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
- (나) 실기형, 자료철 (포트폴리오) 평가와 같은 방법은 주로 실제 기능의 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
- (다) 관찰법, 점검표 (체크리스트)와 같은 방법은 주로 태도의 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

- (3) '화법과 작문' 의 평가에서는 화법 및 작문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평가를 병행한다.
- (가) 화법은 말하기 과정뿐만 아니라 말하기의 준비 과정에 대한 평가도 병행한다. 듣기도 듣기의 결과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듣기 과정에 대한 평가도 병행한다.
- (나) 작문은 완성된 글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그 글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 즉 내용을 생성, 조직, 표현하고 고쳐 쓰는 과정도 평가한다.
- (7) 작문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평가한다.
- (가) 내용의 생성과 조직, 표현의 측면에서 평가하되 이를 분석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 (나) 글의 유형에 따라 평가 대상을 달리하되 각 글의 유형에서 비중을 달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논술문 평가에서는 주장에 따른 근거의 타당성이나 풍부성에 무게 중심을 두어 조직이나 표현 측면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둘 수도 있다.

**이론적 배경**

**작문의 평가 방법**

작문 능력을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들 방법을 분류하는 기준도 여러 가지이다. 형식성을 기준으로 하면 형식적 평가와 비형식적 평가로 나눌 수 있고, 객관성의 정도에 따라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평가 대상'을 기준으로 하면 글 평가와 독자 평가로 나눌 수 있고, 평가의 주체에 따라 나누면 교사 평가와 자기/동료 평가로 나눌 수도 있다. 평가의 대상에 따라서는 작문에 대한 지식을 평가할 것이냐, 아니면 기능이나 전략, 또는 태도를 평가하느냐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 점도 있지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문 평가 방법을 그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는 것이 좋다.

형식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할 때, 형식적 평가와 비형식적 평가로 나눌 수 있다. 형식적 평가는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설정한 다음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한 편의 완성된 글을 대상으로 한다. 대표적인 것은 선다형 평가나 논술형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에 비해 비형식적 평가는 작문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교사의 관찰이나 동료 평가, 사고 구술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동료 평가는 비교적 형식을 갖추어 할 수 있지만 객관성(신뢰도)을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비형식적 평가는 객관성은 떨어지지만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직접성을 기준으로 할 때는, 실제로 한 편의 글을 쓰는 과정을 평가할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글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을 평가할 것이냐에 따라 평가를 나눈다. 논술형 평가의 경우에는 직접 평가에 해당된다. 그리고 사고 구술법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한 편의 글을 쓰는 것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직접 평가에 해당된다. 그러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언어 영역 중 '쓰기'에서는 실제로 한 편의 글을 쓰는 것을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간접 평가에 해당한다. 한 편의 완성된 글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짧은 문장을 제시한 후 수사학적인 지식이나 문법 같은 것을 묻는 것도 간접 평가에 해당된다.

전체를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부분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평가 방법을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평가 자료로 완성된 글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미완성된 글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완성된 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전체적 접근이라 할 수 있고 미완성된 글을 평가하는 것은 부분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논술형 평가는 한 편의 글을 완성하게 한 다음에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 접근을 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단계별 산출물 분석법이나 사고 구술법의 경우에는 일련의 글쓰기 과정을 부분으로 나눈 후 각 부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이를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 접근을 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평가 대상을 기준으로 하면, 글을 쓴 후에 완성된 글을 평가하느냐, 아니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독자의 사고 행위를 평가하느냐에 따라 글 평가와 필자 평가로 나눌 수 있다. 완성된 글을 가지고 어떤 학생이 글을 쓰는 과정을 추론해 볼 수는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수밖에 없다. 반면에, 사고 구술법과 같은 방법을 통해, 실제로 학생들이 글을 쓰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평가 시점에 따라서는, 글을 완성한 후에 평가하느냐, 아니면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 평가와 과정 평가로 나눌 수 있다. 완성한 후에 평가하면 완성된 글 자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평가하면 필자의 인지 행위를 평가할 수도 있고, 그 인지 행위(부분) 결과를 산출해 놓은 것을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레인스토밍을 해 놓은 것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백안빛 선생님의  
최 마무리특강

**작문평가의 방법**

- 가. 선다형 평가
- 나. 논술형 평가 (분석적 평가), (총체적 평가), (주요 특성 평가)
- 다. 속성 기술법(feature analysis)
- 라. 단계별 산출물 분석법
- 마. 교사 관찰형 평가 (일화 기록법), (체크리스트법), (면담법), (질문지법)
- 바. 자기나 동료 평가법
- 사. 포트폴리오법
- 아. 의미 구성 과정 평가법  
(사고 구술법think-aloud method), (과정상 자기 기록법(on-line self record method)),  
(과정상 질문법(on-line question method)), (자기 회상법(self recall method)), (관찰 추론법)

**■ 선다형 평가**

선다형 검사는 몇 개의 답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으로 객관식 평가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다. 이는 작문 지식이나 기능(또는 전략)을 평가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이때 작문 지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문법, 어법, 문장의 구조나 문체, 비유법, 주제문 작성법, 문법적 문제 등에 대한 수사학적 또는 문법적인 지식을 말한다.

선다형 작문 평가의 전형적인 예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언어 영역(작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능 시험에서는 질문에 대해 몇 개의 답지를 제시한 후에 이 중에 하나를 고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런 식의 평가는 실제 작문 능력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간접 평가에 해당된다.

선다형 검사는 자칫하면 지엽적인 지식(문법이나 수사적 규칙)을 측정하기 쉽다. 그리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경우처럼 작문 기능이나 전략 등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지만 이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과 실제 작문 능력 간에는 차이가 많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수능의 경우처럼 작문 능력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할 우려가 높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할 때, 아파트 내에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아닌 것은?'과 같은 문제는 작문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로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작문 평가에서는 최대한 선다형 검사를 치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선다형 검사도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정된 시간에 대규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점, 객관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채점이 쉽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런 이유로 수능에서 선다형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런데 선다형 검사 이외에 주로 작문을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빈칸 메우기식(괄호 넣기)이나 권위형(OX형), 단답식(기술식), 몇 개의 보기를 주고 그 중에 한두 개를 택하게 하는 고르기형 등이 있다. 이들 방식은 그 성격상 선다형 검사와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방식은 주로 단편적인 작문에 대한 지식이나 세부 기능을 평가할 때 쓰는 방식이다. 읽기 평가나 국어 지식 평가 등에서는 사용될 수 있으나, 작문

평가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선다형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몇 가지 점을 고려한다.**

첫째, 작문 지식을 평가할 때에는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문법이나 수사학적 지식을 대상으로 한다. 작문 능력과 직결되지 않는 것은 작문 지식이라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국어 지식 영역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작문 능력과 직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문법이나 수사학적 지식 자체에 대한 평가는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작문 기능 또는 전략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현재 수능의 경우처럼 일련의 글쓰기 과정별로 필요한 작문 기능이나 전략(때로는 지식)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좋다.

셋째, 일반적인 사고 능력이 아니라 작문에서 필요한 사고 능력을 측정하려고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독서 활성화 방안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할 때 자연 보호를 위해 가장 최선의 방법은?"과 같은 문제는 작문에서 필요한 사고 능력으로 보기 어렵다. 주어진 자료에 어떤 조건에 따라 조직, 활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나, 여러 항목을 제시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가 작문 능력에 좀 더 가깝다. 선다형 검사는 단순히 '읽는 활동을 통해 작문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자칫하면 작문 능력이 아니라 '읽기 능력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주의한다.

넷째, 선다형 검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하나의 문제를 너무 간단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수능의 경우처럼 한 문제에 대해 배당된 지문이나 답지의 분량이 너무 적을 경우,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실제 작문 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섯째,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문제 유형을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고정화된 문제 유형을 제시하면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능력의 유무와는 관계 없이 문제 유형을 보고 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아울러 문제 구안의 테크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작문 능력을 평가하는 데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결국 그 문제가 그 문제인데, 문제 유형을 약간 바꾸어 새롭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섯째, 작문 자체가 작문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예를 들어 '헬빙'이나 '페미니즘'과 같은 것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을 경우 문제를 푸는 데 지장이 있다면 곤란하다.

**■ 분석적 평가와 총체적 평가**

일반적으로 논술 평가에서의 채점 방식으로 흔히 세 가지를 든다. 분석적 평가(analytic scoring), 총체적 평가(holistic scoring), 주요 특질 평가(primary trait scoring)가 그것이다. 분석적 평가는 한 편의 글에 대해 내용면, 조직면, 표현면 등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점수를 매긴 후 나중에 종합하는 방식이다. 총체적 평가는 분석적 평가에서 다룬 요소를 고려하되 글의 전체적인 인상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특질 평가는 특정한 한두 요소에 초점을 두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특질 평가를 할 때에는 분석적 평가의 기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분석적 평가는 총체적인 평가에 비해 객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이다. 분석적 평가에서는 학생의 글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총체적 평가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

리고 평가 기준을 만드는 것이 번거로운 단점을 지니고 있다. 총체적 평가는 부분보다는 글의 전체를 평가할 수 있고, 분석적 평가에 비해서는 타당도가 높고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분석적 평가를 할 때에도 글의 전체적인 면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총체적 평가를 할 때에는 분석적 평가를 할 때 고려하게 되는 요소를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주요 특질 평가는 분석적 평가나 총체적 평가에 비해 간편하고 신뢰도가 높지만 한정된 부분만 평가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분석적 평가〉**

분석적 평가를 할 때에는 흔히 내용면, 조직면(또는 구성면), 표현면 등으로 나누어 평가를 한다. 내용면에서는 말 그대로 글의 내용 측면에서 보는 것으로 내용의 풍부성, 정확성, 사고(창의적, 비판적 사고 등) 등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조직면에서는 글의 조직 구조나 방식 등을 보는 것으로 글의 짜임, 문단 구성, 글 전체의 통일성 또는 응집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표현면에서는 표현 방식에 대한 것으로 표현의 정확성, 독창성, 적절성, 다양성 등을 평가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표기 및 어법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나누어 할 수도 있으나 '표현면'에서 다루면 된다.

분석적 평가를 위해서 각 영역별로 평가 기준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많은 요소를 설정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핵심 요소를 설정하도록 한다. 보통은 내용면, 조직면, 표현면으로 나눈 다음 각 영역에서 다시 두세 개의 하위 요소를 설정한다.

분석적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다.

- 첫째, 글의 종류에 따라 평가 기준(항목)을 달리 설정한다.
- 둘째,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통 4점 척도를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6점 척도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짝수로 척도를 설정하는 이유는, 상, 중, 하의 3점 척도로 할 경우에는 '중'에 몰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 셋째,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4점 척도의 경우 4점을 받을 수 있는 평가지의 예, 3점, 2점, 1점, 0점을 받을 평가지의 예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그런 다음,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를 한다. 평가자들은 여기에 대해 합의를 한 다음, 각 점수에 해당하는 평가지는 어떤 경우인지를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점수를 매긴다.
- 넷째,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평가 상황의 경우 반드시 2명 이상이 평가를 해서 평균을 낸다. 5명이 평가할 경우에는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뺀 다음 나머지 3명의 평균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 다섯째, 각 항목에 대해 배점을 할 때 반드시 같은 비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논설문에서 논거의 타당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여기에는 배점을 두 배로 늘려도 무관하다.
- 여섯째, 보통은 부분적으로 평가한 것을 합계한 점수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석적 평가(채점)의 경우에는 각 하위 영역별 점수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

**〈총체적 평가〉**

총체적 평가에서는 내용면, 조직면, 표현면 등으로 따로 떼어 내어 보기보다는 하나의 전체로서 보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런 만큼 총체적 평가(holistic scoring)는 몇몇 기준에 비추어 글의 전체적인 인상을 평가한다. 우선 핵심 요소를 설정한 다음에 이들 기준에 맞는지에 초점을 두어 평가한다.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인상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총체적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글을 대충 훑어보는 것이 좋은데, 이는 평가 기준을 설정할 때 반영하기 위함이다. 평가 기준이 너무 높거나 낮게 설정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쓴 글을 살펴보면 적절한 수준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다음 평가 기준을 설정한다. 보통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등으로 설정되되 각 단계별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엄격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글의 내용이나 조직, 표현 등을 생각하여 핵심 요소를 설정한 다음에 각 단계의 글이 어느 정도의 글인지를 기술한다. 설명문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표 2】 총체적 평가 기준의 예 (설명문의 경우)

<p><b>4점</b> 정보가 풍부하고 대체로 정확함. 글의 연결 관계가 자연스러움. 어법에 어긋난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음.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음.</p>	<p><b>3점</b> 정보가 풍부하기는 하나 정확하지 않은 것이 더러 보임. 글의 연결 관계는 대체로 자연스러움. 어법에 어긋난 부분이 가끔씩 보임.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체로 잘 설명하고 있음.</p>
<p><b>2점</b> 정보가 부족하고 정확하지 않은 것이 꽤 보임. 글의 연결 관계면에서 부자연스러운 것이 더러 보임. 어법에 어긋난 부분이 꽤 보임.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함.</p>	<p><b>1점</b> 정보가 거의 없고 제시된 것도 정확하지 않음. 전체의 연결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나열함. 어법에 어긋난 표현이 상당히 많이 보임. 무엇을 설명하고자 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지 않음.</p>

총체적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한다.

- 첫째, 평가 기준(항목)을 설정할 때, 글의 종류별로 강조해야 할 점을 중요하게 반영한다.
- 둘째,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4점이나 6점 척도로 하는 것이 좋다. 이는 중간 점수가 많은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변별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6점 척도로 한 다음에, 다시 각 척도별로 두세 단계를 설정하면 된다.
- 셋째, 각 척도별 점수에 해당하는 평가의 예를 고르고, 여기에 대해 평가자들이 합의하고 각각의 점수에 해당하는 평가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좋다. 그 기준에 맞추어 예비 평가를 해 볼 수도 있다.
- 넷째, 분석적 평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정 평가지에 대해 평가자들 간에 점수 차가 많이 나면 다른 팀(사람)에게 맡긴다.
- 다섯째, 채점을 해 나가는 중간중간에 각 점수에 해당하는 기준을 환기시키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중재자가 필요한데 중재자는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그 기준을 환기시키는 것이 좋다.
- 여섯째, 가능한 한 평가지에 대해 여러 명이 평가하는 것이 좋은데 5명이 채점할 경우 통상 최고 점수와

백한빛 선생님의  
친구만리특강

최저 점수를 뺀 평균 점수를 산정한다.

일곱째, 분석적 평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칫 글씨나 맞춤법 등의 '지엽적인 문제'가 지나치게 점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이는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좋다.

**<주요 특성 평가>**

주요 특성 평가 또는 주요 특질 평가(primary traits scoring)는 글의 특정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내용면, 조직면, 표현면 등으로 나눌 때 이들 요소 중에서 특정한 부분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면 중에서 어느 한두 요소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아무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쓰기 과제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논설문 평가에서는 주장에 따른 근거가 얼마나 적절하고 풍부하게 드러나 있는가가 중요하데, 주요 특성 평가에서는 이 점(특성)에 맞추어 평가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주요(primary)'한 '특성(traits)'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요 특성 평가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한 편의 완성된 글을 대상으로 한다. 즉, 문장 단위나 한 문단 정도의 글을 쓰게 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주요 특성 평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문장이나 문단 단위의 평가는 다분히 특정 부분에 대한 '지식'을 평가할 때 사용된다.

속성 분석법은 학생들의 글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완성된 글을 대상으로 하지만, 미완성된 글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일련의 글쓰기 과정별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논술형 평가와 다른 점은 점수화하거나 서열화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논술형 평가에 비해 비형식적 평가이다.

물론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좋은 글이 갖추어야 할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척도를 만든 다음에 그 기준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용면, 조직면, 표현면 등으로 나눈 다음, 내용면에서 상, 중, 하, 조직면에서 상, 중, 하, 표현면에서 상, 중, 하에 해당하는 글의 특성을 제시한다. 여기에 비추어서 어떤 글을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척도를 만드는 것은 점수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글이 지닌 속성을 분명히 인식하기 위함이다. 물론 이들 요소 이외에 학생의 글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더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좋다.

<b>채점 요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목표 : “ 쟁점이 있는 문제에 대해 설득적인 글을 쓸 수 있다 ”</li> <li>• ㉠에 비추어 볼 때 쓰기 능력 평가로서의 ㉠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서술할 것</li> <li>• (다)를 단서로 하여 최교사가 글을 평가하기 위해 선택한 평가 방법이 무엇인지 서술할 것</li> <li>• 최교사의 학생 글 평가 방법이 어떤 점에서 김교사에게 적절하지 않은지를 (가)에 나타난 김교사의 평가 의도를 바탕으로 서술할 것</li> </ul>	<p>(가) 김교사: 학생들이 무엇을 숙달했고 무엇을 더 연습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필요 (쓰기 지식에 대한 평가, 글 전체의 인상에 대한 평가보다 작문 기능, 전략 등을 내용, 조직, 표현면에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수업에 반영하려는 의도 - 분석적 평가)</p> <p>(나) 유교사: 김교사의 평가 의도로 볼 때 선다형 평가의 문제점</p> <p>(다) 최교사: 김교사의 평가 의도로 볼 때 총체적 평가의 문제점</p>
<b>답안 작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문의 기능이나 전략 등을 각 단계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1점)</li> <li>• 총체적 평가 (1점)</li> <li>• 학생들이 무엇을 숙달했고 무엇을 더 연습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필요한 김교사의 평가 의도와 관련, 최교사의 평가 방법은 (글 전체의 인상을 평가하는데 적절하지만) 학생의 글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내용면, 조직면, 표현면으로 나뉜 각 세부적 항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엔 적절하지 않다 (2점)</li> </ul>	

■ 유교사가 채택한 선다형 평가의 경우 실제 글쓰기에서 작문의 기능이나 전략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평가하는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데 적절하지 않으며, 최교사가 채택한 총체적 평가는 학생의 글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내용면, 조직면, 표현면으로 나뉜 각 세부적 항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엔 적절하지 않다

**■ 쓰기 능력의 개념과 특성**

**가. 쓰기 능력의 개념**

글을 쓰는 활동, 즉 작문은 의미를 구성하는 활동이다. 의미 구성 활동의 설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문 이론은 형식주의 작문 이론, 인지주의 작문 이론, 사회 인지주의 작문 이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미의 구성 방식에 관하여 형식주의의 작문 이론가들은 언어는 객관적인 요소들로 조직된 고정된 체계이고, 텍스트의 의미는 그 자체로서 자율성을 지닌 텍스트 내에 인입되며, 그 텍스트는 필자가 표현한 의미를 명시적으로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형식주의의 작문 이론에서는 텍스트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며 텍스트의 개념을 의미를 온전히 담고 있는 자율적인 실체로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를 의미의 전달자로 독자를 의미의 수동적인 수신자로 취급하며, 텍스트 생산 능력 즉 의미 구성 능력은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방과 연습을 통하여 신장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인지주의 작문 이론에서는 개별적 작문 행위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며, 텍스트의 개념을 필자의 계획과 목적과 사고를 언어로 번역한 것으로 규정한다. 이 이론에서는 필자를 수사론적 문제 해결자로, 독자를 능동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해석자로 본다. 또한 텍스트를 통한 의미 구성 능력은 개인의 목적 의식과 사고 능력의 계발을 통하여 신장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사회 인지주의 작문 이론에 의하면 필자 개개인은 개별적으로 작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 제약을 가하는 언어 사용 집단 혹은 언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작문을 하는 것이다. 사회 인지주의 작문 이론에서는 언어 공동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며, 텍스트의 개념을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 및 규칙의 집합으로 규정한다. 이 이론에서는 필자를 담화 공동체의 사회화된 구성성원으로, 독자를 해석 공동체의 사회화된 구성원으로 본다. 또한 텍스트를 통한 의미 구성 능력은 건전한 상식의 계발을 통하여 신장되는 것으로 설명하며, 건전한 상식의 계발은 언어 사용 집단으로서의 담화 공동체 혹은 학문 공동체의 참여로 인하여 가능한 것으로 본다.

‘글을 쓸 줄 안다.’ 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음성기호를 문자기호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기능, 즉 기호인입기능(encoding skills)을 갖춘 상태를 뜻할 수도 있다.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를 쓸 줄 알거나 불러 주는 말을 받아 쓸 줄 아는 사람을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정형화된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composition skills)을 갖춘 상태를 뜻할 수도 있다. 국어의 문법적인 구조에 맞게 문장을 작성하거나 전통적인 수사학에서 강조해 온, 글의 일반적인 구성 원리에 맞게 텍스트를 작성할 줄 아는 사람을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글을 쓸 줄 아는 것의 의미를 일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다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의 사회인지주의 작문이론가들은 글을 쓸 줄 아는 능력을 규정함에 있어서 작문 결과로서의 텍스트보다는 텍스트를 생산하는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사회인지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글을 쓰는 행위는 사회적 상황에 근거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글을 쓰는 사람은 정형화된 작문의 관습에 따라 텍스트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면한 수사론적 상황, 자신이 설정한 목적, 자신이 조정하고 통제하는 작문 전략에 따라 텍스트를 생산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글을 쓰는 행위는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목적에 맞게 지식을 변형하고 구성하는 인지적 과정이며, 다양한 가능성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 협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글을 쓸 줄 아는 능력의 개념을 텍스트의 생산과 직결되는 정형화된 지식이나 기능 중심으로 규정하지 않고 글을 쓰는 다양한 행위 중심으로 규정하게 되면 글을 쓸 줄 아는 능력의 구성 요인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글을 쓰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글쓰기의 수행 능력이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쓰기 능력의 수준 또한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 능력에 대한 사회인지주의적 시각은 글쓰기 능력의 특성을 총체적이고도 역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쓰기 능력을 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 규정하거나 정형화된 텍스트의 작성에 필요한 일련의 기술적 기능의 집합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수사론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의 일부로서 수행되는 활동이다. 사람들은 글을 씀으로써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목적의 행위 혹은 교호작용을 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텍스트의 구성 원리 혹은 관습에 따라 텍스트를 조직하고 조직한 텍스트를 적합한 언어로 번역하는 일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 개인은 자신의 쓰기 활동 경험을 통하여 축적한 쓰기의 관습에 대한 일련의 지식을 바탕으로 쓰기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상황의 요구와 필요와 목적에 대한 최선의 반응으로서 쓰기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쓰기 능력은 정형화된 텍스트를 생산하는 고정된 능력이기보다는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능력으로서, 텍스트의 생산 활동을 원활하게 해 주는 일종의 정수(正手)를 둘 수 있는 능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쓰기 활동을 잘 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요인은 쓰기의 관습에 대한 지식과 쓰기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문제 해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쓰기 활동을 잘 하기 위하여 학습해야 할 쓰기의 관습에 관한 지식으로는 내용 생성 원리, 조직 원리, 효과적인 표현 원리, 예상 독자의 요구와 기대의 반영 원리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을 모든 유형의 쓰기 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떤 한 유형의 쓰기 활동을 잘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유형의 쓰기 활동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의 정서와 감상 위주의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도 정확한 논증 위주의 글을 쓰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쓰기 활동에 필요한 지식 혹은 기능은 글을 쓰는 사람이 속한 담화 공동체의 특성과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쓰기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글을 쓰는 과정에서 매우 불확실한 수사론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사론적 상황에 대한 필자의 반응은 사회적 맥락을 해석하는 전략과 표상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필자는 미리 정해진 규칙만으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불확실하고도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면서 글을 쓴다는 것이다. 특정 개인의 쓰기 활동은 바로 그 개인이 처한 사회적 맥락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를 최선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 활동은 글을 쓰는 상황의 해석, 정보의 생성 및 조직, 추론의 생성, 목표의 설정, 선행 텍스트에 대한 반응, 기존 지식의 활성화, 대안의 도출 등을 통한 의미 구성을 위하여 정수를 두어 가는 활동이다.

의미 구성 과정은 경우에 따라 필자의 의식적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또는 유연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의식적인 주의집중과 체계적인 사고작용을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글을 쓰는 사람은 여러 가지 기대와 제약 속에서 의미를 구성하기 위하여 상충되는 정보와 대립적인 목적 사이의 갈등을 적절하게 조절하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제약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글을 쓰는 사람은 협상을 통한 의미 구성 활동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나. 쓰기 능력의 특성

사회인지주의 작문 이론가들은 글을 쓰는 활동을 사회적 상황을 바탕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의 의미 구성 작용은 관점에 따라 지식의 재생산을 위주로 한다고 볼 수도 있고, 대화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협상에 바탕을 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글을 쓰는 능력은 협상을 통한 의미 구성 능력이라는 데서 그 특성을 찾을 수 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의 의미 구성 활동은 일종의 협상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협상의 과정은 해석하기, 협상하기, 재고하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은 글을 쓰는 상황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된다. 필자는 좋은 글을 쓰기 위하여 글을 쓰는 맥락을 이해해야 하고, 예상 독자의 기대를 분석해야 하며, 주어진 작문 과제에 담긴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하며, 필자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해야 한다. 특히, 어렵거나 불확실한 작문 과제에 대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석의 과정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쓰기 활동의 상황에 대한 해석과 함께 필자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쓰기 활동의 기저가 되는 쓰기 전략을 해석하는 일 또한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필자는 내용의 생성 방식이나 조직 방식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질 수 있으며, 이들 대안들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자는 교사나 친구의 반응, 주어진 작문 과제의 성격 등 텍스트 외적인 요인과의 협상을 해야 하지만 글의 맥락, 표현 양식, 지금까지 작성된 텍스트 등 텍스트 내적인 요인과의 협상을 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기존 지식, 지도 교사의 기대, 지금까지 작성한 텍스트, 학습 친구들의 예상 반응 등에 대한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미 구성 과정에서의 재고하기는 의미 구성 결과 및 과정에 대한 평가와 조정과 통제 등의 상위인지적 작용이다. 의미 협상 과정에서의 재고하기는 필자 자신의 목적과 가정과 전략과 동기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쓰기의

백한빛 선생님의  
한 줄짜리 특강

전과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쓰기 능력은 전략적 지식의 집합으로 구성된다든 점에서 그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전략적 지식은 글을 쓰는 과정에서의 목표와 전략과 의식작용 등 세 가지 요인에 대한 절차적 지식을 말한다. 능동적인 의미 구성자로서의 필자는 흔히 모순되거나 문제 투성이의 논리로서 글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략적 지식은 이러한 문제 투성이의 논리를 잘 정돈된 논리로 변형시키는 데 기여한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의 사회인지적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해 주는 요인은 정형화된 규칙이나 공식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적 지식이다.

인지과학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어 온 전략(strategy)이라는 용어는 ‘특정의 군사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조직화된 군사 행동’을 뜻하는 그리스어 strategia에서 유래된 것이다. 복합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인간의 사회적 행위 문제를 다루는 정치학이나 사회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는 이 용어를 어떤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총체적 방법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략은 목표 지향적이고 의도적이며, 의식적이고 조정된 인간 행위와 연관된다. 행위(action)는 특수한 종류의 사건으로서 하나의 상태를 다른 상태로 변화시킨다. 상태의 변화는 동작의 결과로서 초래되며, 그 동작은 목적 소망 기호 의사 동기 등의 인지적 정보의 통제를 받는다. 행위주에 의하여 의도된 마지막 상태는 행위의 결과이다. 만약 그 결과가 행위주의 의도와 일치한다면 그 행위는 어느 정도 성공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주는 마지막 상태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의 성취를 원한다. 예를 들어 행위주가 문을 여는 행위의 결과는 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행위주가 원하는 목적은 행위주 자신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거나 다른 사람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의도와 목적은 분명히 구별된다. 의도는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인지적 표상이며, 목적은 행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에 대한 인지적 표상이다. 이들 인지적 표상은 행위주의 동작과 행위를 조정하게 된다.

전략이라는 개념 속에는 행위, 목적, 선택성 등의 개념적 요소가 포함된다. 전략은 어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최선의 행위 방식에 대한 행위주의 생각이다. 계획이 상위행위(macroaction)와 그 최종 상태 혹은 목적에 대한 총체적 개념이라면 전략은 그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총체적 표상이다. 계획은 하나의 행위에 대한 총체적 표상인 반면에 전략은 그 행위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양식에 대한 총체적 표상이다. 계획과 전략은 계기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총체적 행위의 내용과 양식으로서 함께 표상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계획은 총체적 행위에 포함된 가능한 행위를 결정하는 상위 정보이며, 전략은 가장 효율적이거나 합리적인 선택을 결정짓는 상위 정보이다.

전략은 규칙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규칙이 표준화된 방식으로 행동을 규제하는 사회 공동체의 다소 일반적인 관습과 관련되는 데 비해, 전략은 하나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그 규칙을 독특하게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규칙은 가능한 또는 올바른 행위에 대한 표준으로서 명시적이거나 비명시적으로 설정된다. 예를 들어

언어에 대한 규칙은 어떤 발화가 주어진 언어 체계 내에서 올바른 것인지를 결정짓는다. 규칙이 올바른 행동에 대한 일반적이고도 상대적으로 고정된 처방인 반면에 전략은 개인이 처한 어떤 특성의 상황에서 주어진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행동 양식과 연관된다. 규칙이 가능한 수(move)를 규정하는 반면에 전략은 가능한 여러 가지 수들 중에서 어느 수가 가장 효율적인 수인지를 규정한다.

전략은 문제해결(algorithm)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개념이다. 규칙은 여러 가지 가능한 수를 규정하는데, 이들 수들은 문제해결이나 전략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규칙이 정확하게 적용되지만 한다면 문제해결은 중국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마련해 주게 된다. 문제 해결의 전형적인 예로서 수식의 계산을 들 수 있다. 대단히 복잡한 수식의 계산에 있어서 문제 해결의 절차를 침습성 있게 차례대로 밟아나가게 되면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 해결의 절차를 모두 밟는 것이 현실적으로 비생산적이거나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전략적 접근이 요청된다. 전략적인 수는 문제해결과는 달리 이성적인 추측이기 때문에 해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자원과 시간 내에서 복잡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략이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이 뒤따르는 합리적인 자용과 관련되는 반면에 문제해결은 현실성이 결여된 규칙의 이론적인 적용과 연관된다.

전략은 총체적 발견(heuristic)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개념이다. 총체적 발견은 발견 절차의 체계로서, 주로 문제 해결의 맥락에서 행위주로 하여금 어떤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 해 주는 지식을 획득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총체적 발견 과정에서는 자동적이거나 명시적인 방식으로 지식을 획득할 수 없는 맥락에서 지식의 발견을 목적으로 전략들이 사용된다. 총체적 발견의 전형적인 예는 과학적인 탐구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떤 규칙이나 법칙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관찰해야 하며, 기존의 규칙으로부터 새로운 규칙을 도출해야 하며,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설정된 가설을 검증해야 한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전략이라는 용어를 어떤 종류의 인지적 행동을 지칭하는 데 사용해 왔다. 전략은 사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의성을 지니는 개념이다. 전략은 일련의 행위와 목적에 대한 인지적 표상 즉 총체적 계획과 연관되는 개념으로서 의도, 능력, 행위 맥락, 가능성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심리적 과정의 결과이다. 이러한 심리적 과정은 명시적이거나 규칙적일 수도 있고 암묵적이거나 불규칙적일 수도 있다. 인간의 심리적 과정이 의식적으로 조정되고 규칙성을 띄게 되면 각각의 심리적 단계는 다음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명시적으로 마련해 주게 된다. 그러나 인간이 수행하는 심리적 활동 가운데는 규칙적이지 않거나 의식적으로 조정될 수 없는 것들도 많다.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경우의 총체적 목적은 이해와 감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략은 불규칙적이고 암묵적이며, 행위주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쉽게 통제되지도 않는다.